

##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려도방어대와 조선인민군 해군 제155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려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과도 세찬 풍랑길을 헤치시고 방어대에 도착하시자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군인들과 가족들은 조국과 혁명에 대한 성스러운 책임감을 안으시고 사회주의 조국수호의 전선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를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한없는 그리움을 터쳐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려도 방어대의 군인들과 가족들에게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사회주의 조국의 동해안방위 려도를 철벽으로 지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군부대관하 4중대와 해안포대대 3중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방어대의 군인들,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지휘관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어버이장군님께서 보아주시는 화력기재를 돌아보신 다음 혁명사적교양실을 찾으시였다.

이러 군사강실에 들리신 최고령도자께서는 방어대에서 군사강실을 현대전에 대처한 작전전투방안들과 전투조법들을 연구 완성할 수 있는 거점으로 잘 꾸리고 지휘관, 참모부훈련을 실속있게 벌려 그들을 그 어떤 전투임무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싸움군지휘관들로 준비시키고 있는데 대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군인회관과 도서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실태를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눈색이로 하여 차를 밀고 올라야 하는 가파로운 언덕길을 뚫으시며 높은 산정에 위치한 지휘감시소에 오르신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방어대장으로부터 정황보고를 들으신 다음 작전도를 주의 깊게 보아주시면서 역량과 화력기재의 배치상태, 적들이 노리는 상륙기지와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격퇴하기 위한 작전전술방안, 방어대의 전투임무수행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방어대지휘관들과 군인들이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군사전략전술사상과 전법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려도를 적들의 어떠한 불의의 침공과 화력타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요새로 다진대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방어대지휘관들과 군인들이 총포성이 울리지 않을 때에도 늘 싸움준비완성에 대해 생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려도 방어대의 싸움준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려도방어대에서 자체로 운영하고있는 병사원과 부식물창고, 남새온실을 비롯한 후방정리시설들을 돌아보시였다.

병사원의 운영계획과 봉사실태를 알아보신 최고령도자께서는 먹음직스러운 빵, 파배기, 떡, 국수를 비롯한 여러가지 음식들을 보시면서 군인들이 좋아하는 다니 아침일찍 배길에 오르느라 식사를 하지 못했는데도 배가 부르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단지와 탕크에 가득찬 물고기절임과 갖가지 부식물을 보시고 이것만 보아도 방어대에서 후방사업을 잘 짜고들고있는 것이 알린다고 말씀하시였다.

여러가지 남새들이 푸르싱싱 자라는 온실에 들어서시어서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대로 온실을 잘 꾸려 겨우내 풍성한 남새를 딸지 않았다는 지휘관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동무들이 수고했다고, 이렇게 꾸러놓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날 방어대 직속중대와 해안포중대를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병실에 들리시어서는 병사들의 침대에 허물없이 앉으시며 난방보장문제도 알아보시었고 세목장에 들리시어서는 수질상태와 물량도 료해하시였으며 치수를 드시고 이닭기방법도 알려주시면서 군인들이 이몸을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이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어버이장군님께서 다녀가신 해안포까지에서 화력부훈련을 지도하시였다.

별적의 포탄을 장탄하고 명령을 기

다리는 군인들의 미더운 모습을 만족하게 바라보신 최고령도자께서는 군인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어 그들의 어깨를 다정히 껴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오중용7세대청호를 수여받은 이 부대는 전투정치훈련은 물론 후방사업, 부대지휘관리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모범이라고 하시면서 지난 기간 그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려도방어대를 돌아보니 정말 일을 많이 한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25년간 이곳 방어대장으로 사업하면서 려도를 철벽의 요새로 다지고 군인생활개선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바친 공화국영웅 천재권의 수고를 뜨겁게 헤아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지휘관들에게 려도를 동무들에게 맡긴다고, 건강하여 싸움준비완성에서 더 큰 성과를 바란다고 당부하시기도 과도세찬 배례에 또다시 오르신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오중용7세대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제155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과도를 헤치시며 군부대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목에여 부르는 해병들의 우렁찬 함성이 망망한 바다위로 메아리쳐갔다.

최고령도자께서는 걱정의 눈물로 두볼을 적시는 해병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며 조국의 바다를 굳건히 수호해가고있는 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사적비와 사적합선들을 돌아보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해군무력의 창설과 그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에 의하여 지난날 바다를 지킬 변변한 족제 한척도 없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강위력한 무적의 함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과 장군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라

고 말씀하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주문진해전에서 단 4척의 어뢰정으로 미제의 중순양함 《볼티모》호를 격침시키고 세계해전사에 류례없는 전과를 이룩하였으며 평화시기 우리의 령해에 침범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하여 세상을 놀래운 군부대의 자랑찬 공훈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계류장에 정박하고있는 경비함 1003호에 오르시어 함선을 돌아보시였다.

백두산3대장군들께서 리용하신 함선의 여러곳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면서 군부대의 해병들이 사적합선을 원상대로 잘 보존관리하고있는데 대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군부대의 전투임무와 훈련실태, 경계근무수행정형, 전투기술기재의 장비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다음 군부대관하 1편대, 4편대, 5편대, 83편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1편대 어뢰정 1213호의 화력부부와 전술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민활하고 정확하게 전투초소를 차지하고 맡겨진 임무를 능숙히 수행하는 해병들의 강한 모습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면서 언제 임대하였는지 정말 날래다고 치하하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해병들이 전투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하는 한편 적들의 침략행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전투근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기도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편대들의 병실, 교양실, 식당들도 돌아보시면서 해병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1편대의 중대교양실에 들리신 최고령도자께서는 해병들에게는 훈련을 마치고 갑판에 모여 기가와 손풍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는 해병문화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정서생활을 할수 있게 기가와 손풍금을 비롯한 문화기재들을 충분히 갖추어주라고 말씀하시였다.

DVD노래반주기재를 리용하여 부르는

중대장과 중대정치지도원의 2중창 《내가 지켜선 조국》을 들어주시고 98점을 맞은 그들에게 박수도 보내주시였다.

탁상교양자료리용실태를 료해하시고 인민군총정치국에서 군인들에게 탁상교양자료들을 제때에 보내주어 그들이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게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4편대의 식당 취사장에 들리시어 해병들에게 무엇을 먹이기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조리대에 차려놓은 물고기를 보시고서는 정상적으로 먹고있는가도 알아보시였다.

일일량식규정량표를 보아주시며 풍은 얼마나 먹고있는가를 알아보신 최고령도자께서는 올해 공농사를 잘 지어 군인들에게 여러가지 공음식을 많이 만들어 먹임으로써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83편대의 세목장에 들리신 최고령도자께서는 수질상태도 알아보시고 한중간, 리밭하는 장소도 세심히 보아주시며 잘 꾸러다고, 깨끗하다고 평가하시였다.

식당의 조리대에 있는 버섯을 보시고 생산은 어떻게 하고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가공하여 먹이는데도 물어주시였고 푸르싱싱한 봄남새들을 보시고서는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83편대의 병영주변에 감나무가 많아 감나무구분대라고 부른다는것과 해병들에게 감을 실컷 먹이고도 남아 광명성절과 태양절에도 먹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군부대해병들이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1편대, 4편대, 5편대, 83편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우렁차게 부르며 걱정의 눈물을 흘리는 해병들에게 최고령도자께서는 거듭 손을 저어 답례하시였다.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지휘관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면서 자주 오시겠다고, 건강하여 훈련을 잘하라고 당부하시였다.

본사기자

##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준비위원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앞두고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벽천 환경속에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대표자선거를 위한 조선인민군당대표회, 도(정치국), 시(구역), 군 당대표회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당대표회, 도(정치국)대표회들에서는 전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대표로 높이 추대하였다.

또한 대표회들에서는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공로있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대표자로 선거되였다.

대표회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우리 당 력사에서 네번째로 되는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는 주제101(2012)년 4월 11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열리게 된다.

##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 국제축전이 진행된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뜨겁게 분출되고있는 속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수도 평양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국제축전이 진행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국제준비위원회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기념 조선준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국제축전은 주제 101(2012)년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열리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을

인류공동의 명절로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한 호소문이 2008년 1월 파키스탄에서 발표되고 이해 8월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북유럽준비위원회가 처음으로 결성되였다.

국제축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국제준비위원회와 지역별, 나라별 준

비위원회 대표를,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점견자들과 후손들, 세계 여러 나라의 명망 높은 인사들, 우리 인민과의 친선 및 현대성단체들과 국제기구성원들을 비롯하여 수백명의 외국대표들이 참가하게 된다.

국제축전기간 만경대교향집방문 및 기념식수, 백두산일영교향집방문,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국제련환대회, 백두산3대장군 위대성도서, 흠모작품전시회 및 국제문제에작품헌상모집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벌어지게 된다.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과 탁월한 령도로 인류자주위업을 승리

으로 이끄시였으며 나라와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도 불멸의 공헌을 하신 백두산위인들에 대한 끝없는 경모심을 안고 축전참가자들은 지금 준비사업을 더욱 활기있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국제축전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리도록 고무추동하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주체사상세계대회소집에 대한 공보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그 위업의 빛나는 계승에 관한 주체사상세계대회가 주제101(2012)년 4월 12일과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다.

대회에는 5대륙의 여러 나라 정계, 사회계의 저명한 인사들,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 대륙

별, 나라별 주체사상연구조직대 대표를,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참가하게 된다.

대회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시어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쌓아올리신 세계사적업적을 총화하고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제국주의를 반대

하고 세계자주화와 평화,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토의되게 된다.

대회는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다.

### 주체사상세계대회 국제준비위원회 주체사상세계대회 조선준비위원회

주제 101(2012)년 4월 4일  
평양

# 숭고한 민족애와 통일의를 지니시고

산과 들에 꽃이 피는 4월이다. 태양처럼 환하신 그 영상,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 사람들의 귀전에 들리는듯 절절한 경모의 정을 자아내는 4월.

해마다 이 계절이 오면 우리 겨레는 민족의 영원한 아버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그리며 그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곤 한다.

아버이수령님의 생애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절세의 애국자, 전설적위인의 한생이었다.

항일대전의 나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반일 애국력량을 묶어세우는 대단함의 경륜을 펼치시어 조국을 해방하신 그이께서는 나라가 분열된 후에도 조국통일을 위해 불문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수령님께서 최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3천만가운데 조국해방이 곧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을 낳고 그 분단과 분열이 곧 반세기의 대국난으로 이어지게 될리라는 것을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쓰시었다.

민족분열은 아버이수령님이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었으며 조국통일은 그의 가장 절절한 념원이었다.

평양의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속섬에도 그의 통일령도의 자욱이 어려있다.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두고 제일로 마음써오신 아버이수령님께서 나라의 영구분열을 막고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의 국면을 열어놓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시었다.

력사적인 4월남북부석회의에 참가했던 백범 김구는 이곳에서 수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숭고한 민족애와 통일경륜, 고매한 덕망에 매혹되어 《조선은 바로 잡을 영웅은 오직 김일성장군밖에 안계신다. 나는 김일성장군이 가시는 길을 따라 가겠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했다.

민족의 분열을 막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새 조국건설의 나날 민족의 아버지, 통일의 구성이신 수령님의 품을 찾아 모여온 애국인사들은 그 열마였던가. 려운형, 김구식, 홍명희, 안동수...

사상과 정견, 신앙과 제도, 주의주장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조선의 문인협동사를 진히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각계층 동포들을 민족대단합과 통일실현으로 불러일으키신 아버이수령님의 로고와 심혈을 오늘날 사람들은 잊지 못했다. 수령님께서 해내외동포들을 만나실 때마다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온 민족이 민

중에서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나라를 통일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수령님이셨다. 또 언제인가 수령님께서 교향시곡 《광주여 영원히》를 창작한 윤이상동포를 만나시고 작품을 여러번 들어보았는데 곡이

매우 좋다고, 그런 좋은 작품을 세계에 알리려는 것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하시며 음악예술창작으로 통일에 이바지하는 그를 치하하시었다.

윤이상선생은 우리 민족이 아끼는 재간들이기때문에 건강관리를 잘하여 민족을 위해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야 한다고 고무도하신 수령님이시었다.

그이의 열렬한 민족애와 숭고한 덕망, 크나큰 믿음에 매혹되어 최홍희, 문익환, 김성락등포를 비롯한 해내외의 수많은 각계층 민족성원들이 단합의 기치아래 통일애국의 길을 곳곳이 걸었던 것이다.

외세의 끊임없는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이 격화되고있을 때 폭넓은 북남협상제안으로 자주적평화통일실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으신분도, 반통일세력의 《두개조선》 조작책동을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으로 배격하시며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신분도 수령님이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마지막으로 친필을 남기신것도 조국통일관련문헌이었다.

## 《 김 일 성 1994. 7. 7. 》

숭고한 민족애를 지니신 아버이수령님은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위하여 자신을 깔고리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영원한 아버이시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력사적인 판문점시찰의 나날에 말씀하신것처럼 항일혁명투쟁시기를 내놓으면 경애하는 수령님의 한생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한생이었다.

오늘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대결책동에 의해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이 커다란 난관과 위기에 직면하였지만 절세위인들의 조국통일사상과 업적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어 자주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은 민족은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따라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아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유훈대로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통일조국의 그날을 앞당겨올것이다. 본사기자 명금룡

## 숭고한 애국의 뜻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10대에 애국의 길에 나서실 때 마음속에 굳게 품으신것은 《지원》의 사상이었다.

《지원》이란 문자그대로 뜻을 원대하게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개인의 영달이나 립신명명을 바라는 인생교훈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 인생관이며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 《지원》의 사상이었다. 《지원》의 높은 뜻을 안으시고 김형직선생님께서 걸으신 력사의 새벽길을 이어 수령님께서서는 만난신고를 헤치시며 곳곳이 걸으시어 민족자주위업의 전도양양한 시대를 개척하셨던 것이다.

## 주체의 기치높이

아버이수령님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신 주체의 태양이시이다.

지금으로부터 80여년전인 1930년 그이께서는 고심어린 사색과 탐구를 기울이시며 민족자주위업의 실천적요구와 민족의 지향과 의사를 반영하여 저술하신 《조선혁명의 진로》를 발표하시어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였다. 창춘현 카운의 화려하고 웅장한 대회장이나 강당이 아닌 시골의 자그마한 진명학교의 교실에서였다. 교실바닥에는 대포들을 위해 초물방석들을 깔았고 천정에는 여러개의 남포등이 매달려있었다. 하나 농촌마을의 그 소박한 교실에는 민족의 운명, 조국의 운명이 실려있었다.

애국에 피끓는 새 세대 핵심들로 조직된 회의에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부심으로 할대 대한 선군사상을 제시하였다. 총대로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할데 민족자주위업을 완성할데 대한 총대중시사상의 천명은 선군사상의 창시를 엄숙히 선포한 력사적사건이었다. 새로운 사상이 새로운 시대를 낳는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창시로 자주시대, 선군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 평생의 좌우명

나라와 민족과 더불어 한생을 사신 아버이수령님의 좌우명은 이민위천이었다.

그이께서는 최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이민위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었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믿고 그 힘에 의거할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생

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었다고 괴력하였다.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기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삼야야 한다는 것이 온넛을 인거할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생

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었다고 괴력하였다.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기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삼야야 한다는 것이 온넛을 인거할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생

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었다고 괴력하였다.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기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삼야야 한다는 것이 온넛을 인거할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생

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었다고 괴력하였다.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기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삼야야 한다는 것이 온넛을 인거할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생

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었다고 괴력하였다.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기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삼야야 한다는 것이 온넛을 인거할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생

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었다고 괴력하였다.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기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삼야야 한다는 것이 온넛을 인거할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생

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었다고 괴력하였다.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기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삼야야 한다는 것이 온넛을 인거할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생

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었다고 괴력하였다.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기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삼야야 한다는 것이 온넛을 인거할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생

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었다고 괴력하였다.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기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삼야야 한다는 것이 온넛을 인거할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생

# 위대한 수호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불세출의 천출명장이시었고 우리 조국의 강대성과 승리의 상징이시었다.

령장이 있어 강군이 있고 나라의 안녕과 민족의 존엄이 있다.

공화국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국력을 비상히 강화하여 민족의 명예와 존엄을 힘있게 떨치는 오늘을 맞이하고 있었다.

지난 해 90년대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한결같은 의사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을 지니신 장군님께서서는 국방사업을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정치와 군사를 능숙하게 결합시키는 탁월하고 세련된 선군정치로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었다.

국력에서 기본은 군력이다. 무적의 총대에 인민의 선명파 조국의 존엄이 있다는 선군의지를 지니신 장군님께서서는 불문불휴의 정력적인 전진시찰로 인민군대를 조국수호의 믿음직한 근위대로 강화발전시키시었고 온 나라를 강력한 전정적력력을 갖춘 불패의 보루로 다지시었다.

선군에 우리의 오늘이 있고 찬란한 레일이 있다는것은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었다. 그이께서는 시련의 고비들이 앞을 가로막아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변함없이 선군정장을 걸고 또 걸을 굳은 의지를 지니시고 조국수호의 자욱자욱을 초소마다에 수없이 새기시었다.

조국이 최악의 시련을 겪

던 그 나날들에 장군님께서 세기전 선군의 자욱은 철령, 오성산과 대덕산, 1211고지와 351고지를 비롯한 조국의 산밭들과 고지마다에 력력히 어려있다. 사시정철 곳은날과 마른날 가림없이, 낮과 밤, 날과 날을 이어 달리고 달린 그의 야전차의 동음 울리지 않은곳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뿔뿔산 식강행군과 비범한 령군술로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시였기에 온 나라에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새로운 력사적전환기가 마련되게 되었다.

나라의 경제가 급속도로 비약하는 속에 인민생활대고조와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이 세차게 몰아치고 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경이적인 사면들이 다채로운 펼쳐져 인민의 세기적인 념원과 리상이 하나둘 현실화되고있다.

천출명장의 비범한 자질과 품격, 특출한 정치실력을 지니신 장군님은 온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삼천리강도의 안전을 수호하시고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의 새시대 열의의 구성이시었다.

조국통일을 최대의 애국으로, 자신의 숭고한 사명으로 여기시고 통일조국건설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신 장군님의 령도에 의해 력사적인 평양상봉들이 마련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되며 조국통일사에 뚜렷한 패지가 새겨지게 되었던 것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과 언론들에서는 장군님에 대한 흠모와 격찬의 목소리가 련이어 울려나오고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장군중의 장군》, 본사기자 리경월

# 민족대단결사에 빛나는 고귀한 업적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전에 나라의 분렬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두고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였으며 조국통일문제때문에 늘 마음쓰시었다.

뜻깊은 태양절이 다가오는 지금 온 겨레는 통일의 대정치현장인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내놓으시어 민족대단결의 초석을 마련해주신 아버이수령님의 그 로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 있다.

1990년대 초 침략적인 외세와 그와 야합한 남조선당국의 반통일, 반민족적책동은 그 어느때보다도 집요하고 악랄하였다. 우리 민족의 머리에에는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게 되었고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에는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게 되었다.

침에 한 정세 속에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반도에서 시시각각 증대되는 핵전쟁의 위급을 가시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실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안으시고 끊임없는 사색과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주체82(1993)년 3월이였다. 어느날 그이께서는 한 인민에게 어떤 최고인민회의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민족대단결강령을 토의하고 발표하자고 한다고 하시면서 전민족대단결강령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민족대단결강

령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표준으로 삼았다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기본내용은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서 온 민족이 단결된 힘으로 일제식민지통치를 끝장내자는것이였다고, 이러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기본내용에 기초하여 오늘 조국통일의 절박한 현실적요구에 맞게 작성한 전민족대단결강령을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표표하여야 한다고, 지금의 정세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발표하던 시기와 같다고 불수 있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구상하시고 몸소 집필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주체82(1993)년 4월 6일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온 세상에 장엄하게 선포되었다.

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끝바른 길을 밝혀준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조국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념원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내외의 전족통일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켰다.

《민족의 운명개척의 올바른 길을 밝힌 대헌장》, 《7천만겨레를 통일예로 부르는 화해와 단합의 위대한 기치》...

은 민족이 한결같이 터치는 찬란의 목소리는 민족성원 한사람한사람을 통일이국의 주체로 내세워주신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신

뢰와 청송이었다. 그때로부터 어언 열아홉해가 흘렀다.

그 나날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기치높이 화해하고 단합하는 과정을 통하여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의 정당성, 진리성을 페부로 절감하였다.

겨레에게 단결의 기치, 대헌장을 안겨주시어 민족대단결위업, 조국통일위업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수령님의 업적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6.15자주통일시대와 더불어 더욱 빛나게 되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사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에 의하여 변함없이 계승되고있다. 김정욱

## 현재수기

아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태양절을 가까이할수록 나의 마음속에 그이에 대한 절절한 경모와 심과 아울러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뜨겁게 차오르고있다.

나의 아버지(김원균)가 그처럼 열렬히 고무하고 따라 우리 수령님이시이다. 그의 거룩하신 위인적품모에 매혹되어 아버지는 온 겨레가 지난 세기 력사적사면으로 맞이한 조국해방후 수령흥모, 태양승배의 노래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지었다. 아버이수령님의 위인상이 어려있는 불멸된 태양승가를 창작한것은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무상의 영광이고 크나큰 행운이였다.

## 태양의 모습에 매혹되며 (1)

아버지가 수령승가를 지은 것은 단지 남다른 재간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우리 아버지는 일제식민지 통치시기 막별이군이였다. 평양과 원산 등지를 떠돌이하며 광산이나 철공소, 양잠공장 같은 고역장에서 마스처럼 일하며 생계를 연명했다. 조국이 해방을 맞은 그날에도 콩포래로 지은 점심밥을 허리에 차고 왜놈들의 철공소에서 품을 팔아야 했던 아버지에게도 비로소 재

는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을 절세의 애국자, 전설적 위인, 민족적영웅으로 흠모하고 격찬하는 전민족적승배령기가 폭양처럼 달아오르던 시기였다.

수령님이 아니시었다면 과연 조국해방과 민족재생에 대해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는가.

력사의 새시대가 태양승가를 기다렸다. 이제나저제나 온 겨레의 한결같은 기대와 념원이요 지향이며 의지였다. 민족의 의사와 소망을 헤아리시어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노래를 잘 만들도록 마

음쓰신 항일의 념정영웅 김정숙녀사의 뜻에 고무되어 우리 아버지는 수령님의 위인상을 노래하는 작품창작에 전심전력하게 되었다.

10대의 어린시 나이에 애국의 길에 나서시어 실천공회습는 항일의 전장에서 품찬로속하시며 조국해방을 위해 만고공상을 다 겪으신 수령님의 존귀하신 모습은 아버지의 흥벽을 뜨겁게 달구며 폭발적인 지혜와 열정이 솟게 했다. 백두산줄기출시에, 압록강 굽이굽이에 피어린 자욱을 새기시며 일제의 100만대군을 타승하고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신 절세의 애국자, 굽이진 백두산장군의 만고의 업적을 그대로 담아야 했다. 김경민

#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강성국가건설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기적 희천발전소 준공식 성대히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축하문 전달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주체 100년대를 강성번영의 년대, 자랑찬 승리의 년대로 빛내이기 위한 장엄한 대진군이 벌어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뜻깊은 태양절을 앞두고 희천발전소가 완공되었다.

희천발전소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강인담대한 의지와 정력적인 령도, 숭고한 애국헌신에 의하여 솟아오른 력사의 기념비이며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후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이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에 드리는 고귀한 로력적산물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한 이 성파는 세상에 소리쳐 자랑할만 한 민족의 긍지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더없는 기쁨을 안겨주는 온 나라의 대경사이다.

선군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인 희천발전소가 일떠섬으로써 평양시의 전기문제를 보다 원만히 풀고 청천강주변의 농경지와 주민지역을 큰물피해로부터 보호하며 희천지구와 남흥지구 공장, 기업소들의 공업용수를 원만히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10년이상 걸려야 한다던 대규모 동력기지건설을 단 3년동안에 끝낸것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장엄한 진군을 개시한 우리 조국력사에 특기할 기적으로 된다.

희천전역에 펼쳐진 경이적인 전변은 세계를 향하여 용솟음치며 경제강국에로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쾌거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선군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건설된 희천 1호발전소와 희천2호발전소 준공식이 5일에 각각 진행되었다.

준공식장으로 모여온 참가자들은 발전소건설에 바치신 아버지장군님의 로고를 눈물겹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돌아보며 장군님에 대한 한없이 그리움에 휩싸여있었다. 준공식들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희천발전소건설에서 빛나는 로력적유훈을 세운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 일군들과 지원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축하문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이 위원장이 전달하였다.

크나큰 감격과 행복속에 공동축하문을 받아안은 참가자들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며 뛰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해 하였다. 준공식들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

원인 최영림 내각총리가 준공사를 하였다. 건설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자랑찬 로력적성공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희천1호발전소와 희천2호발전소 준공식들을 가지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98(2009)년 3월 희천발전소건설의 장엄한 포성을 울려주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8차례나 건설장에 현지지도의 거룩한 자욱을 새기시면서 발전소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었으며 건설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희천발전소건설을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선으로 내세워주시고 수시로 건설정형을 로해하시면서 각종 료전기재들과 막장설비들을 보내주시었으며 언제건설에서 기계화비중을 높이고 새로운 공법들을 받아들여 전반적인 공사를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2009년 9월 건설장을 찾으시어 희천발전소건설속도를 혁명적군인정신에 바탕을 둔 선군시대의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명명해주셨으며 그 이듬해 또 다시 건설장을 찾으시고 석수댐이 지는 지하막장에까지 들어가서 건설자들을 뜨겁게 고무해주셨다.

새해 초조와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12월에도 력사적인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었을 때에도 발전소건설장부터 찾아주시었으며 희천발전소건설자들이야말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해 나가는 화성용사들이며 강성대국승리의 새날을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대고조선의 제일기술들이라는 최상최대의 믿음이 담긴 특별감사문을 보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여리차례 희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룡림언제건설을 비롯하여 모든 대상건설을 적극 추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었으며 발전소건설자들이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 령도와 뜨거운 온정에 무한히 고무된 건설자들은 공사장마다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켰다.

룡림언제건설을 맡은 조선인민군 군인건설자들은 단숨에의 기상을 떨치며 로라다짐식공법을 비롯한 앞선 방법들을 받아들여 불과 700여일만에 대규모언제쌍기와 전천-룡림언제도로건설을 끝내고 룡림군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켰다.

희천언제건설을 담당한 조선인민내무군 군인건설자들은 콩크리트부재에 의한 타임방법, 자동차와 벨트콘베아에 의한 혼합물 운반방법을 비롯한 앞선 공법들을 받아들여 류레없는 공사속도를 창조함으로써 언제타임공사를

2년동안에 끝냈으며 희천시-희천언제도로건설을 성과적으로 완공하였다. 탁아소와 유치원, 편의봉사건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워 희천2호발전소주변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1호와 2호발전소 설비조립에 떨쳐나선 로동계급은 결사전을 들이대어 종전같은 3~4년은 걸려야 할 방대한 공사를 1년 2개월만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수력발전소건설력사에 없는 세기적인 성과는 전적으로 희천발전소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의 빛나는 결실이다.

연설자는 오늘 우리앞에는 희천발전소 2단계공사장을 비롯한 주요전구들에서 희천의 기상을 남김없이 펼쳐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원만히 풀며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과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백두산위인들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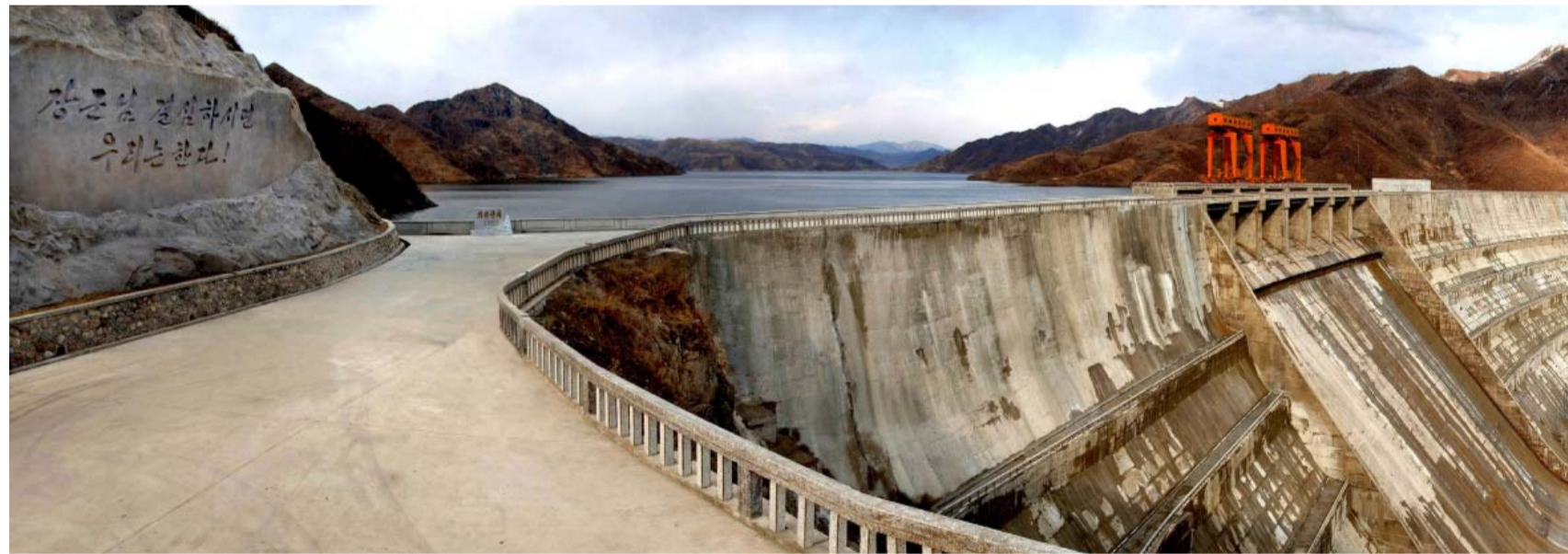
희천1호발전소 준공식에서는 조선인민군 장령들인 박정남, 김창의, 평안남도려단 려단장 주윤명, 희천2호발전소 준공식에서는 희천발전소건설현장지휘부 책임자 심삼모, 조선인민내무군 군관 조정남, 희천발전소 지배인 김수길 등이 토론하였다.

준공식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준공식들은 《우리는 맹세한다》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참가자들은 전력생산의 동음드높은 희천1호발전소, 2호발전소를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선군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건설된 희천언제(←)와 희천2호발전소(↑)

## 《영원한 주체의 태양》

### 태양절기념 수중체조무용모범출연 진행

태양절기념 수중체조무용 모범출연 《영원한 주체의 태양》이 5일 창광원 수영관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에 대한 다함없는 경외의 정이 정내에 차넘치는 속에 서장 《만경대는 혁명의 요람》으로 모범출연이

시작되었다. 5인수중체조무용 불후의 고전적명작 《시랑기》, 2인수중체조무용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변영하 여라 로동당시대》, 1인수중체조무용 《영원한 그 미소》, 3인수중체조무용 《영원한 태양의 봄》, 전체수중체조무용 《청산별에 풍년이 왔네》를 비롯한 다채

로운 종목들이 펼쳐졌다. 출연자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의 개척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심을 우아한 물동과 아름다운 조형, 여러가지 대 형변화에 담아 형상하였다.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 말고도 가신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수수한 야

전복차림으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초강도강행군을 단행하신 아버지장군님의 선군의 천만리, 애국헌신의 장정을 가슴뜨겁게 되새기었다. 아동집체수중체조무용 《세상에 부럼없어라》, 《우리는 행복해요》에서 출연자들은 고마운 사회주의국에서 행복을 누리며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워가고있는 우리 어린이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을 텅기, 솟구치기 등의 재치있는 기교로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장장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우리는 맹세한다》로 끝난 수중체조무용모범출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갈 천만군민의 불굴의 기상과 우리 나라 수중체조무용의 자랑찬 발전면모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 태양절기념 빙상휘거모범출연 진행

태양절기념 빙상휘거모범출연이 5일 빙상관에서 진행되었다. 《태양절기념》이라고 쓴 전광글발이 나붙어있고 명절일색으로 화려하게 단장된 빙상관은 뜻깊은 4월의 명절을 맞으며 더욱 강렬해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외의 정으로 설레이고있었다.

《태양절을 노래하세》의 선율이 장내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출연자들은 황홀하고 우아한 물동과 대형변화로 민족최대의 명절을 성대히 기념하는 온 나라 인민의 크나큰 감격과 환희를 형상하였다. 출연자들은 주체의 광휘로운 빛발로 우리 인민에게 참된 삶을 안겨주시고 이 땅 위에 후손대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혁명업적을 칭송하여 세련된 높은 기교동작들로 《만경대의 노래》, 《그리움의 대화》 등의 종목들을 펼쳐 보였다.

수령님께서 우등불가에서 고향 만경대를 그리며 부르시던 불후의 고전적명작 《시랑기》의 은은한 선율이 흐르는 속에 빙상휘거선수들이 아름다운 물동을 보여주는 종목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웃음꽃이 만발했네》, 《내 나라의 푸른 하늘》, 《우리는 행복해요》를 비롯한 종목들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보람찬 삶을 누리어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조약화전, 도립회전과 제인 안삼불로 감명깊게 형성하였다. 관람자들은 《우리는 천리마 타고 달린다》, 《하나라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등의 종목들을 보면서 주체100년사를 빛내인 김일성민족의 불굴의 정신력으로 강성부흥의 레일을 향해 줄달음쳐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령도따라 주체의 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오늘의 대고조선에서 승리를 펼쳐서는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맹세를 담아 출연자들은 《단숨에》, 《발걸음》,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종목으로 끝난 모범출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 민족의 태양을 받들던 력사의 그날을 돌이켜보며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를 아로 새기는 뜻깊은 이 시각 주체혁명의 첫 기슭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누리를 밝히는 태양이 되어달라고 낱일 자에 이를 성자로 된 존함을 지어올린 열혈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환호성이 들려오는 것 같다. 나의 아버지 최일천과 어머니 승소옥을 비롯한 열혈의 청년들이 우리의 결을 떠난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다.

력사의 그 날을 돌이켜 삼가 붓을 드니 우리 민족의 성스러운 애국의 첫 세대인 그들의 눈길이나를 지켜보는것 같다.

\* \*  
우리 집에는 주제82(1993)년 4월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겨찍은 가족사진이 정히 모셔져있다. 그 사진을 감회깊이 바라보는 이 가슴속에는 못 잊을 그날이 어제된듯 떠오른다.

4월 2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아버지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하는 의식에 이어 애국렬사릉에 유해 안장하는 의식이 있었다.

《최일천동지 반일애국렬사 1905년 10월 11일생 1950년 11월 5일 회생》이라고 쓴 화강석비돌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화환이 놓여있었다. 자신을 대신하여 부어달라고 술까지 보내주신 수령님께서서는 행사정형을 세세히 알아보시고 다음날 우리를 위해 물소 시간을 내시었다.

그이께서는 4월 22일 금수산의사당(당시)홀에서 해외에서 온 어릴 때 우리를 키워준 유래정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태친과 합창에서 살던 우리 형제를 반갑게 맞아주시었다.

우리들은 숫구치는 걱정을 금치 못하며 《수령님!》하고 부르며 달려가 삼가 큰 절을 올리고 곁에도 뵈고싶던 그이품에 안기었다.

정말 반갑다고, 어서 손이나 한번 잡아보자고 하시며 저의 앞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렇게도 보시고 저렇게도 보시다 다시 한발 뒤로 물러서시어 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시더니 동주자 아버지의 모색을 신동히도 뚫었다고, 최일천이를 보냈으면 동주를 보라고 하시면서 저의 손을 꼭잡고 잡아주시었다. 《아버님!》

나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불리며 호느기었다. 얼마나 불리고싶은 부름이었던가, 아버지와 헤어진 후 나는 40여년의 지나간 세월 아버지란 말을 해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심정을 헤아리신듯 울지 말라고, 그러면 내 마음도 아프다고 하시며 우리 세 자식을 굳게 포옹해주신 수령님께서서는 오늘의 상봉을 기념해서 사진을 찍자고 하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온 가족과 함께 그리고 한자람씩 따로따로 자신의 곁에 세우시고 기념사진들을 찍어주시었다.

잠시후 우리들은 수령님을 가운데 모시고 단란한 한가정처럼 둘러앉았다.

그이께서는 감회깊은 눈길로 우리를 둘러보시며 자신께서는

최일천의 집에 여러번 가셨다고, 그때는 내가 19살이었는데 최일천은 나보다 나이가 우였다고, 최일천동무는 내가 처음 《E. C》를 조직할 때 성원이었다고, 그가 우자프(오가자)를 혁명명으로 만드는데 많은 일을 했다고 하시었다. 자신의 혁명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폐지가 우자프생활이라고 하시며 아버지의 일신상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과 품성에 대해서까지 빠짐없이 회고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추억과 함께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우렷이 되살아났다.

나는 우리 두 형제를 낳아키운 어머니를 이국땅에서 다섯살에 잃고 같이 있던적보다 떨어져있었던 더 많은 아버지와도 열네살에 이별하였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어머니에 대해서는 얼굴모습도 어렵 못하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았다. 마지막 기억으로 남은것은 조국해방전쟁시기 형들을 의용군으로 다 떠나보낸 아버지가 서울에서 나이가 어려 군복을 입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나의 손목을 잡고 울려다던던 일이다. 그때 아버지는 기어이 나를 입대시키고 《김일성장군님 품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주머니에 께기밥을 넣어주며 나의 등을 떠밀었다.

전후에 우리 형제는 아버지를 찾았으나 행적을 알수 없었다. 부모님들은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고있었다.

그런데 뜻밖에 기적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나의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수록되어있었던 것이다. 나는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보고 또 보았다. 그러자 부모님들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점점 내 앞에 나타나나것이었다.

회고록의 다른 부분들도 다 자신에 대한 추억이기도 수많은 동지들에 대한 잊지 못할 위인의 은정진 추억이기도 하지만 그 회고록의 갈피마다에 나의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애뜻한 정과 연연한 사랑이 속속들이 숨배어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다. 회고록 8권에 이르기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의 부모님들을 회고하여 쓰신 그 글줄들을 보는 이 눈앞에는 망각속에 묻혀버렸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다운 청춘시절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는것이었다.

우리 가정의 매력이며 활아버지를 비롯한 친척들의 인간미와 개성은 물론 부모님들의 편애담까지 그렇듯 가슴쓰거이 회억하시다. 랑친의 인생행로보다 그것을 그토록 소중히 아껴 력사에 빛내주신 수령님의 하늘같은 덕망이 이 가슴에 력력히 어려웠다. 세월의 흐름속에 오솔길이 묻혀버리듯 력사의 초행길을 사라져버렸던 사실들을 문문자로 아로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은정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 수 있리라.

수령님께서 나에게 자상히 말씀해주시는듯 한 회고록을 읽고 또 읽자 그때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일들이 새로운 의미로 채색되면서 새록새록 떠올랐다. 늘 집을 나가 살던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는 날은 명절날이었다. 내가 어디 가서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가 동동 매달리던 우리 형제들을 빙 둘러 앉히고 《먼 곳에 다니오는 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폐지가 우자프생활이라고 하시며 아버지의 일신상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과 품성에 대해서까지 빠짐없이 회고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추억과 함께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우렷이 되살아났다.》

나는 우리 두 형제를 낳아키운 어머니를 이국땅에서 다섯살에 잃고 같이 있던적보다 떨어져있었던 더 많은 아버지와도 열네살에 이별하였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어머니에 대해서는 얼굴모습도 어렵 못하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았다. 마지막 기억으로 남은것은 조국해방전쟁시기 형들을 의용군으로 다 떠나보낸 아버지가 서울에서 나이가 어려 군복을 입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나의 손목을 잡고 울려다던던 일이다. 그때 아버지는 기어이 나를 입대시키고 《김일성장군님 품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주머니에 께기밥을 넣어주며 나의 등을 떠밀었다.

전후에 우리 형제는 아버지를 찾았으나 행적을 알수 없었다. 부모님들은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고있었다.

그런데 뜻밖에 기적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나의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수록되어있었던 것이다. 나는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보고 또 보았다. 그러자 부모님들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점점 내 앞에 나타나나것이었다.

회고록의 다른 부분들도 다 자신에 대한 추억이기도 수많은 동지들에 대한 잊지 못할 위인의 은정진 추억이기도 하지만 그 회고록의 갈피마다에 나의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애뜻한 정과 연연한 사랑이 속속들이 숨배어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다. 회고록 8권에 이르기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의 부모님들을 회고하여 쓰신 그 글줄들을 보는 이 눈앞에는 망각속에 묻혀버렸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다운 청춘시절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는것이었다.

우리 가정의 매력이며 활아버지를 비롯한 친척들의 인간미와 개성은 물론 부모님들의 편애담까지 그렇듯 가슴쓰거이 회억하시다. 랑친의 인생행로보다 그것을 그토록 소중히 아껴 력사에 빛내주신 수령님의 하늘같은 덕망이 이 가슴에 력력히 어려웠다. 세월의 흐름속에 오솔길이 묻혀버리듯 력사의 초행길을 사라져버렸던 사실들을 문문자로 아로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은정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 수 있리라.

수령님께서 나에게 자상히 말씀해주시는듯 한 회고록을 읽고 또 읽자 그때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일들이 새로운 의미로 채색되면서 새록새록 떠올랐다. 늘 집을 나가 살던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는 날은 명절날이었다. 내가 어디 가서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가 동동 매달리던 우리 형제들을 빙 둘러 앉히고 《먼 곳에 다니오는 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폐지가 우자프생활이라고 하시며 아버지의 일신상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과 품성에 대해서까지 빠짐없이 회고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추억과 함께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우렷이 되살아났다.》

나는 우리 두 형제를 낳아키운 어머니를 이국땅에서 다섯살에 잃고 같이 있던적보다 떨어져있었던 더 많은 아버지와도 열네살에 이별하였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어머니에 대해서는 얼굴모습도 어렵 못하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았다. 마지막 기억으로 남은것은 조국해방전쟁시기 형들을 의용군으로 다 떠나보낸 아버지가 서울에서 나이가 어려 군복을 입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나의 손목을 잡고 울려다던던 일이다. 그때 아버지는 기어이 나를 입대시키고 《김일성장군님 품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주머니에 께기밥을 넣어주며 나의 등을 떠밀었다.

전후에 우리 형제는 아버지를 찾았으나 행적을 알수 없었다. 부모님들은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고있었다.

그런데 뜻밖에 기적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나의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수록되어있었던 것이다. 나는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보고 또 보았다. 그러자 부모님들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점점 내 앞에 나타나나것이었다.

회고록의 다른 부분들도 다 자신에 대한 추억이기도 수많은 동지들에 대한 잊지 못할 위인의 은정진 추억이기도 하지만 그 회고록의 갈피마다에 나의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애뜻한 정과 연연한 사랑이 속속들이 숨배어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다. 회고록 8권에 이르기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의 부모님들을 회고하여 쓰신 그 글줄들을 보는 이 눈앞에는 망각속에 묻혀버렸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다운 청춘시절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는것이었다.

우리 가정의 매력이며 활아버지를 비롯한 친척들의 인간미와 개성은 물론 부모님들의 편애담까지 그렇듯 가슴쓰거이 회억하시다. 랑친의 인생행로보다 그것을 그토록 소중히 아껴 력사에 빛내주신 수령님의 하늘같은 덕망이 이 가슴에 력력히 어려웠다. 세월의 흐름속에 오솔길이 묻혀버리듯 력사의 초행길을 사라져버렸던 사실들을 문문자로 아로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은정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 수 있리라.

수령님께서 나에게 자상히 말씀해주시는듯 한 회고록을 읽고 또 읽자 그때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일들이 새로운 의미로 채색되면서 새록새록 떠올랐다. 늘 집을 나가 살던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는 날은 명절날이었다. 내가 어디 가서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가 동동 매달리던 우리 형제들을 빙 둘러 앉히고 《먼 곳에 다니오는 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폐지가 우자프생활이라고 하시며 아버지의 일신상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과 품성에 대해서까지 빠짐없이 회고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추억과 함께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우렷이 되살아났다.》

나는 우리 두 형제를 낳아키운 어머니를 이국땅에서 다섯살에 잃고 같이 있던적보다 떨어져있었던 더 많은 아버지와도 열네살에 이별하였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어머니에 대해서는 얼굴모습도 어렵 못하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았다. 마지막 기억으로 남은것은 조국해방전쟁시기 형들을 의용군으로 다 떠나보낸 아버지가 서울에서 나이가 어려 군복을 입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나의 손목을 잡고 울려다던던 일이다. 그때 아버지는 기어이 나를 입대시키고 《김일성장군님 품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주머니에 께기밥을 넣어주며 나의 등을 떠밀었다.

전후에 우리 형제는 아버지를 찾았으나 행적을 알수 없었다. 부모님들은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고있었다.

그런데 뜻밖에 기적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나의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수록되어있었던 것이다. 나는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보고 또 보았다. 그러자 부모님들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점점 내 앞에 나타나나것이었다.

회고록의 다른 부분들도 다 자신에 대한 추억이기도 수많은 동지들에 대한 잊지 못할 위인의 은정진 추억이기도 하지만 그 회고록의 갈피마다에 나의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애뜻한 정과 연연한 사랑이 속속들이 숨배어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다. 회고록 8권에 이르기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의 부모님들을 회고하여 쓰신 그 글줄들을 보는 이 눈앞에는 망각속에 묻혀버렸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다운 청춘시절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는것이었다.

우리 가정의 매력이며 활아버지를 비롯한 친척들의 인간미와 개성은 물론 부모님들의 편애담까지 그렇듯 가슴쓰거이 회억하시다. 랑친의 인생행로보다 그것을 그토록 소중히 아껴 력사에 빛내주신 수령님의 하늘같은 덕망이 이 가슴에 력력히 어려웠다. 세월의 흐름속에 오솔길이 묻혀버리듯 력사의 초행길을 사라져버렸던 사실들을 문문자로 아로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은정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 수 있리라.

수령님께서 나에게 자상히 말씀해주시는듯 한 회고록을 읽고 또 읽자 그때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일들이 새로운 의미로 채색되면서 새록새록 떠올랐다. 늘 집을 나가 살던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는 날은 명절날이었다. 내가 어디 가서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가 동동 매달리던 우리 형제들을 빙 둘러 앉히고 《먼 곳에 다니오는 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폐지가 우자프생활이라고 하시며 아버지의 일신상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과 품성에 대해서까지 빠짐없이 회고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추억과 함께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우렷이 되살아났다.》

나는 우리 두 형제를 낳아키운 어머니를 이국땅에서 다섯살에 잃고 같이 있던적보다 떨어져있었던 더 많은 아버지와도 열네살에 이별하였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어머니에 대해서는 얼굴모습도 어렵 못하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았다. 마지막 기억으로 남은것은 조국해방전쟁시기 형들을 의용군으로 다 떠나보낸 아버지가 서울에서 나이가 어려 군복을 입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나의 손목을 잡고 울려다던던 일이다. 그때 아버지는 기어이 나를 입대시키고 《김일성장군님 품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주머니에 께기밥을 넣어주며 나의 등을 떠밀었다.

전후에 우리 형제는 아버지를 찾았으나 행적을 알수 없었다. 부모님들은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고있었다.

그런데 뜻밖에 기적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나의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수록되어있었던 것이다. 나는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보고 또 보았다. 그러자 부모님들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점점 내 앞에 나타나나것이었다.

회고록의 다른 부분들도 다 자신에 대한 추억이기도 수많은 동지들에 대한 잊지 못할 위인의 은정진 추억이기도 하지만 그 회고록의 갈피마다에 나의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애뜻한 정과 연연한 사랑이 속속들이 숨배어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다. 회고록 8권에 이르기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의 부모님들을 회고하여 쓰신 그 글줄들을 보는 이 눈앞에는 망각속에 묻혀버렸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다운 청춘시절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는것이었다.

우리 가정의 매력이며 활아버지를 비롯한 친척들의 인간미와 개성은 물론 부모님들의 편애담까지 그렇듯 가슴쓰거이 회억하시다. 랑친의 인생행로보다 그것을 그토록 소중히 아껴 력사에 빛내주신 수령님의 하늘같은 덕망이 이 가슴에 력력히 어려웠다. 세월의 흐름속에 오솔길이 묻혀버리듯 력사의 초행길을 사라져버렸던 사실들을 문문자로 아로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은정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 수 있리라.

수령님께서 나에게 자상히 말씀해주시는듯 한 회고록을 읽고 또 읽자 그때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일들이 새로운 의미로 채색되면서 새록새록 떠올랐다. 늘 집을 나가 살던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는 날은 명절날이었다. 내가 어디 가서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가 동동 매달리던 우리 형제들을 빙 둘러 앉히고 《먼 곳에 다니오는 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폐지가 우자프생활이라고 하시며 아버지의 일신상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과 품성에 대해서까지 빠짐없이 회고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추억과 함께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우렷이 되살아났다.》

나는 우리 두 형제를 낳아키운 어머니를 이국땅에서 다섯살에 잃고 같이 있던적보다 떨어져있었던 더 많은 아버지와도 열네살에 이별하였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어머니에 대해서는 얼굴모습도 어렵 못하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았다. 마지막 기억으로 남은것은 조국해방전쟁시기 형들을 의용군으로 다 떠나보낸 아버지가 서울에서 나이가 어려 군복을 입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나의 손목을 잡고 울려다던던 일이다. 그때 아버지는 기어이 나를 입대시키고 《김일성장군님 품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주머니에 께기밥을 넣어주며 나의 등을 떠밀었다.

전후에 우리 형제는 아버지를 찾았으나 행적을 알수 없었다. 부모님들은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고있었다.

그런데 뜻밖에 기적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나의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수록되어있었던 것이다. 나는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보고 또 보았다. 그러자 부모님들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점점 내 앞에 나타나나것이었다.

회고록의 다른 부분들도 다 자신에 대한 추억이기도 수많은 동지들에 대한 잊지 못할 위인의 은정진 추억이기도 하지만 그 회고록의 갈피마다에 나의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애뜻한 정과 연연한 사랑이 속속들이 숨배어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다. 회고록 8권에 이르기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의 부모님들을 회고하여 쓰신 그 글줄들을 보는 이 눈앞에는 망각속에 묻혀버렸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다운 청춘시절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는것이었다.

우리 가정의 매력이며 활아버지를 비롯한 친척들의 인간미와 개성은 물론 부모님들의 편애담까지 그렇듯 가슴쓰거이 회억하시다. 랑친의 인생행로보다 그것을 그토록 소중히 아껴 력사에 빛내주신 수령님의 하늘같은 덕망이 이 가슴에 력력히 어려웠다. 세월의 흐름속에 오솔길이 묻혀버리듯 력사의 초행길을 사라져버렸던 사실들을 문문자로 아로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은정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 수 있리라.

수령님께서 나에게 자상히 말씀해주시는듯 한 회고록을 읽고 또 읽자 그때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일들이 새로운 의미로 채색되면서 새록새록 떠올랐다. 늘 집을 나가 살던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는 날은 명절날이었다. 내가 어디 가서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가 동동 매달리던 우리 형제들을 빙 둘러 앉히고 《먼 곳에 다니오는 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폐지가 우자프생활이라고 하시며 아버지의 일신상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과 품성에 대해서까지 빠짐없이 회고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추억과 함께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우렷이 되살아났다.》

나는 우리 두 형제를 낳아키운 어머니를 이국땅에서 다섯살에 잃고 같이 있던적보다 떨어져있었던 더 많은 아버지와도 열네살에 이별하였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어머니에 대해서는 얼굴모습도 어렵 못하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았다. 마지막 기억으로 남은것은 조국해방전쟁시기 형들을 의용군으로 다 떠나보낸 아버지가 서울에서 나이가 어려 군복을 입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나의 손목을 잡고 울려다던던 일이다. 그때 아버지는 기어이 나를 입대시키고 《김일성장군님 품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주머니에 께기밥을 넣어주며 나의 등을 떠밀었다.

전후에 우리 형제는 아버지를 찾았으나 행적을 알수 없었다. 부모님들은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고있었다.

그런데 뜻밖에 기적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나의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수록되어있었던 것이다. 나는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보고 또 보았다. 그러자 부모님들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점점 내 앞에 나타나나것이었다.

회고록의 다른 부분들도 다 자신에 대한 추억이기도 수많은 동지들에 대한 잊지 못할 위인의 은정진 추억이기도 하지만 그 회고록의 갈피마다에 나의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애뜻한 정과 연연한 사랑이 속속들이 숨배어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다. 회고록 8권에 이르기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의 부모님들을 회고하여 쓰신 그 글줄들을 보는 이 눈앞에는 망각속에 묻혀버렸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다운 청춘시절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는것이었다.

우리 가정의 매력이며 활아버지를 비롯한 친척들의 인간미와 개성은 물론 부모님들의 편애담까지 그렇듯 가슴쓰거이 회억하시다. 랑친의 인생행로보다 그것을 그토록 소중히 아껴 력사에 빛내주신 수령님의 하늘같은 덕망이 이 가슴에 력력히 어려웠다. 세월의 흐름속에 오솔길이 묻혀버리듯 력사의 초행길을 사라져버렸던 사실들을 문문자로 아로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은정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 수 있리라.

수령님께서 나에게 자상히 말씀해주시는듯 한 회고록을 읽고 또 읽자 그때에는 미처 깨닫지

## 《자주시대의 위대한 태양》

### 영국단체 인터넷에 글 게재

태양절에 즈음하여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가 3월 22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사진을 모시고 《자주시대의 위대한 태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진보적인류는 자주시대의 위대한 개척자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열화같은 흠모의 정을 안고 주석의 탄생 10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주석의 탄생기념일은 인류공동의 명절이다.

해마다 그러하였듯이 올해에도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들에서 기념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출판보도물들도 주석의 불멸의 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글들을 련일 특집하고 있다.

김일성주석은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탁월한 명도로 온 세계의 자주 화위업에 공헌하신 인류의 걸출한 수령이시었다.

그이께서는 천리헤안의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자주위업실현을 위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으며 정력적인 활동으로 세계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

주석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신것은 인류사상리론

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는 인류사상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위대한 사상이다.

김일성주석께서 세계자주 화위업에 쌓아올리신 빛나는 업적중의 하나는 많은 나라 진보적당들이 혁명과 진실에서 혁명적인적, 사회주의원칙을 굳건히 고수해나도록 하신것이다.

인류사에는 위인들이 적지 않지만 김일성주석과 같이 생전에는 물론 서거후에도 만민의 열화같은 칭송을 받고계시는분은 없다.

정녕 김일성주석은 전결

한 반제자주정신, 사회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을 지니시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심으로써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인류의 영원한 수령, 자애로운 어머니이시었다.

세계를 진감시키는 태양절기념절풍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자주시대를 펼쳐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절대적인 신뢰심의 분출이다.

20세기가 낳은 걸출한 위인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속에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신다.

본사기자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불멸의 꽃 김일성화를 아름답게 피워가고있다.

# 민간인불법사찰사건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 남조선판 《워터게이트》 사건

최근 남조선에서 민간인불법사찰사건의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있다.

그도 그럴것이 이번 사건의 배후조종자가 다름아닌 청와대와 《대통령》으로 주목되었기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에서는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사찰사건을 《한국판워터게이트사건》, 《미국 워터게이트사건보다 몇배의 폭발력이 있는 중대한 범죄》,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묘사하고있다. 결코 우연한 소리가 아니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 워터게이트사건은 1972년 6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닉슨의 재선을 노린 공화당이 워싱턴에 있는 워터게이트라는 고층건물에 있는 민주당본부 사무실에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였다가 드러난 사

건이다.

이 사건으로 하여 닉슨은 부통령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남조선에서 드러난 민간인불법사찰사건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을 훨씬 능가하고있다.

2010년에 터진 민간인불법사찰사건은 2008년 미국산 미친소고기의 수입을 반대하여 나선 각계층 인민들의 반《정부》투쟁을 진압하기 위한 남조선보수당국의 음모와 모략의 산물이다.

당시 종북적으로 확산되는 반《정부》초보시위에 겁을 먹은 남조선보수당국은 《감찰》의 미명하에 그해 7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작리지원관실을 별도로 차려놓고 《정부》를 반대하는 민간인들뿐만 아니라 자들의 집권안정에 장애로 되는 정계인, 기업인, 언론

인 등 모든 인물들과 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불법사찰을 감행하였다.

얼마전 남조선의 《KBS》로조가 밝힌데 의하면 공작리지원관실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무원은 물론 드러난것만 해도 2 600여건의 금융계주요인사 및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불법사찰을 벌여놓은 건수는 현재 드러난것만 해도 2 600여건에 달했다.

이 자료가 불법사찰단 5개 조종 1개 조에서 나온 자료인것을 놓고보면 이번이 드러난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것은 리명박패당이 집권 초기부터 자들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반대파측에 얼마나 피눈이 되어 날뛰었는가를 예시해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공작리지원관실은 발족된 첫날부터 보수집권세력의 직접적인 지시를

말아 수행하는 하부조직으로, 자기의 기능을 망각한 《암행어사》 감찰기관으로 사람들로부러 규탄과 비난을 받아왔다.

지금 남조선보수당국은 민간인불법사찰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대신 개별적인 인물들과 부처의 잘못으로 묘사하며 발뺌하기에 급급해하고있다. 이러한 범죄행위에는 그러한 범죄를 또다시 되풀이하겠다는 흉심이 그대로 비껴갔다.

현실은 리명박패당이야말로 자들의 《정권》유지와 안정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무지막지한 파쇼독재무리이며 이러한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계승 남아있는 한 남조선인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절대로 개선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철호

##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담화

최근 남조선에서는 총선거를 앞두고 민간인불법사찰사건이 크게 터져 만사람을 격분시키고있다.

남조선의 《KBS》새로조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피괴무총리실산하 공작리지원관실이 청와대의 지시밑에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불법사찰을 진행한 사실을 보여주는 문건들을 대량 공개함으로써 은 남녘땅이 역적패당에 대한 규탄 여론으로 끓어번지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과 야당들은 이번 사건을 《한국판워터게이트사건》, 《전제군주 박정희의 유신체제하에서나 볼수 있는 중대사태》라고 단죄하면서 《사상초유의 국가문란》 행위를 감행한 리명박역대의 탄핵과 퇴진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폭로된 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민간인불법사찰사건은 철두철미 리명박 《정권》과 야당이 한적히 되어 저지

른 조직적인 특대형 반인권 범죄행위이다.

역적패당은 집권하자부터 파쇼독재당의 본성을 드러내며 《정권》유지를 위해 진보적인 통일운동단체들은 물론 《국회》의원들과 이천 《정권》시기 임명된 공공기관책임자들, 주요 언론사장과 경제인 지어 장관, 차관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정치사찰을 감행하였다.

특히 괴뢰당국의 정보모략정치, 인권유린행위는 여당 정치사찰의 뒤받침에 감행되었다.

박근혜를 비롯한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리명박패당의 민간인불법사찰사건을 덮어버리는데 적극 협력하였다.

그리고 당국의 사찰기록들을 계통적으로 넘겨받아 정치적대과들과 야당들을 모해고 공격하는데 악용하였으며 지어 《국회》청사 안에 있는 야당대표의 방까지도 청하는 비열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력대적으로 이전 군사파쇼 독재자들도 민간인불법사찰을 비롯한 모략정치를 일삼았던 리명박-박근혜패당

처럼 청와대와 폭압기구, 집권여당이 공모결탁하여 무차별적인 정보정치를 감행한것은 처음이다.

모든 사실은 리명박-박근혜당이야말로 《유신》독재를 통가하는 극악한 파쇼독재, 반인권강매무리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지금 총선거를 앞두고 민간인불법사찰사건이 불거져 리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기운이 급격히 고조되는데 바빠맞은 역적패당은 이번에 공개된 불법사찰문건의 대부분이 이전 《정권》시기의것이었고 발표하면서 그 파문을 막아보려고 분주히 돌아치고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청와대》 책임질 일이 없고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갖은 오그랑수를 쓰고있다.

그러나 그러한 유치하고 어리석은 술책에 넘어갈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불법정치사찰로 말하면 그 원조상은 다름아닌 박근혜의 예비인 박정희의 《유신》독재 《정권》이다.

그 예비에 그 딸이라고 《유신》독재자의 딸 박근혜와 《유신》장단의 무리인 《새누리당》은 리명박역대와 함께 이번 사건의 장본인으로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

민간인불법사찰과 같은 세상을 경악케 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인권을 악랄하게 유린하고있는 리명박-박근혜패당이 그 누리의 《인권》에 대해 떠들며 반공화국모락소동에 매달리는것이야말로 가스롭기 짝이 없다.

리명박역대와 박근혜패당에 대한 남조선인민의 분노와 저주는 하늘을 찌르고있다.

역적무리가 또다시 《국회》와 《정권》을 차지하면 남조선이 지금보다 더 약한 인권폐허지대, 파쇼암흑사회로 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은 회세의 파쇼광신자, 반인권 범죄집단인 리명박-박근혜패당을 올해의 선거들을 통하여 거이어 쓸어버려야 할 것이다.

주제101(2012)년 4월 3일 평양

《새누리당》패들이 리명박 《정권》의 민간인불법사찰사건의 진상이 현이 드러나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자 《우리도 피해자》라느니, 《철저한 진상조사》나 하며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특히 이 당패거리들은 《이번 사찰의 80%가 이전 《정권》 때 벌어진것》이라고 떠들며 사건이 저들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듯이 놀아내고있다.

랭수먹고 이빨빠졌다는 격의 어처구니 없는 주례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만폭하게 유린하는 각종 모략과 정치사찰행위는 현 《새누리당》을 이끌고있는 박근혜의 예비인 박정희의 독재정치에 뿌리를 두고있다.

알려진것처럼 모략과 범죄의 소굴 《중앙정보부》가 출현한것은 5.16군사정

변직후인 1961년이다. 당시 박정희군사파쇼도당은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요구를 억누르고 총칼로 가로켄 파쇼 《정권》을 유지하며 급격히 높아가는 조국통일기운을 차단하기 위해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를 내었다.

그리고는 이를 제 손아귀에 거머쥐고 각종 모략과 교

## 불법사찰의 뿌리는 《유신》독재

문학살, 암해공작과 불법사찰행위를 비롯한 인권유린행위를 수없이 저질렀다.

《유신》독재자는 《중앙정보부》를 내세워 정치, 경제, 행정, 사법, 외교, 언론, 북남관계 등 사회전반에 걸친 독재의 마수를 깊숙이 뻗치고 사람들의 일거일동을 감시통제하면서 모든 분야를 좌지우지하였다.

《중앙정보부》의 막강한 권력과 포악성, 잔인성은 남

을 낀다. 밖을 나가거나 전화를 할 때면 누군가 나의 뒤를 밟고있거나 전화통화 도청하고있다는 생각을 털어버릴수 없다. 집에서조차 필담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공포심이 항상 나를 뒤따르고있다. 이리다가 정신분열증에 걸리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글까지 출판물에 실렸는가.

박정희역대는 민심으로부터 고립되고 집권위기가 심

한다.》고 떠들어대면서 이전 《정권》시기에 폐지되었던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다시 꾸리고 《주요정치인 특별관리》라는 업무항목을 새로 내왔으며 《정보원》의 기구개편을 통해 대대정보수집을 전담하는 2차장산하의 기구들을 확대하는 등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인제가도 자유와 민주를 누릴수 없었다.

본사기자 주광일

## 《항아리속의 계》꼴

남조선에서 민간인불법사찰사건과 관련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사이의 물고뜰는 싸움이 가히 가판이다.

불법사찰과문이 확산되자 제일 먼저 바빠난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이번 사건이 저들과는 연관이 없는듯이 놀아대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해나섰다.

남조선에서 민간인불법사찰사건과 관련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사이의 물고뜰는 싸움이 가히 가판이다.

불법사찰과문이 확산되자 제일 먼저 바빠난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이번 사건이 저들과는 연관이 없는듯이 놀아대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해나섰다.

남조선에서 민간인불법사찰사건과 관련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사이의 물고뜰는 싸움이 가히 가판이다.

불법사찰과문이 확산되자 제일 먼저 바빠난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이번 사건이 저들과는 연관이 없는듯이 놀아대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해나섰다.

남조선에서 민간인불법사찰사건과 관련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사이의 물고뜰는 싸움이 가히 가판이다.

불법사찰과문이 확산되자 제일 먼저 바빠난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이번 사건이 저들과는 연관이 없는듯이 놀아대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해나섰다.

남조선에서 민간인불법사찰사건과 관련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사이의 물고뜰는 싸움이 가히 가판이다.

불법사찰과문이 확산되자 제일 먼저 바빠난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이번 사건이 저들과는 연관이 없는듯이 놀아대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해나섰다.

남조선에서 민간인불법사찰사건과 관련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사이의 물고뜰는 싸움이 가히 가판이다.

불법사찰과문이 확산되자 제일 먼저 바빠난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이번 사건이 저들과는 연관이 없는듯이 놀아대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해나섰다.

남조선에서 민간인불법사찰사건과 관련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사이의 물고뜰는 싸움이 가히 가판이다.

불법사찰과문이 확산되자 제일 먼저 바빠난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이번 사건이 저들과는 연관이 없는듯이 놀아대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해나섰다.

남조선에서 민간인불법사찰사건과 관련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사이의 물고뜰는 싸움이 가히 가판이다.

불법사찰과문이 확산되자 제일 먼저 바빠난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이번 사건이 저들과는 연관이 없는듯이 놀아대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해나섰다.

남조선에서 민간인불법사찰사건과 관련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사이의 물고뜰는 싸움이 가히 가판이다.

불법사찰과문이 확산되자 제일 먼저 바빠난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이번 사건이 저들과는 연관이 없는듯이 놀아대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해나섰다.

## 리명박을 심판하고 몰아내자

### 남조선 각계층 인사들 역도심판투쟁을 호소

3월 31일 남조선의 반권정화비상시국통성단이 모임을 가지고 불법적인 민간인사찰로 민주화를 유린하고 동족 적대정책으로 전제위기를 몰아온 리명박역도를 퇴진시키자고 주장하였다.

통일운동원로들과 청년학생, 법조계, 언론계, 의료계 등 각계 인사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반역정책, 부정부패, 민간인불법사찰을 일삼는 현 《정권》의 죄악을 성토하였다.

이번 총선거를 통해 리명박을 반드시 심판하고 권력의 자리에서 몰아내야 한다

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그들은 특히 남북사이 군사적긴장이 격화되고 전제위기가 고조되는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현 《정권》과 《새누리당》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공동선언문이 낭독되었다.

선언문은 끊임없이 북을 자극하는 리명박 《정부》의 대결정책이 피할 길없는 전제위기를 몰아왔다고 하면서 이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민심의 버림을 받은 현 《정권》이 총선거에서 불리한 처지에 빠지게 되자

총체적위기에 처 벗어나보려고 《북풍》 조작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고 선언문은 비난하였다.

최근에 드러난 불법사찰사건은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하고 선언문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사찰을 감행한 리명박 《정부》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국민모두가 거리에 떨쳐나 초불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4월 7일 서울시청앞광장에서 평화과피의 주범인 리명박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자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1 -> 민간인불법사찰을 감행한 리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본사기자 최광혁

## 《사찰정권 퇴진하라!》

### 남조선대학생들 시위투쟁 전개

남조선의 대학생들이 1일 서울에서 리명박역적패당의 무차별적인 민간인불법사찰

행위를 규탄하여 시위투쟁을 벌렸다.

대학생들은 《사찰정권 퇴진하라!》, 《독재정권, 리명박정권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배라를 뿌리며 청와대를 향하여 행진하였다.

그들은 이번이 민간인불법사찰행위의 공개로 현 《정권》의 반민주적죄행이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단죄하였다.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현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리명박이 독재자의 비참한 말로를 면하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라고 언명하였다.



역사질

파쇼경찰들이 달려들어 시위자진원을 강제연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본사기자

3월 29일 남조선의 《KBS》 방송로조는 리명박 《정권》이 감행한 민간인불법사찰의 진상을 낱알이 폭로하는 2 600여건의 문서들을 공개하였다.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 첫날에 발표된 문서들은 원자란보다 더한 위력으로 남조선정치권을 일대수장으로 만들어놓고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현 남조선집권세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작리지원관실을 꾸려놓고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17개 기관을 동원하여 자들의 눈에 거슬리는 세력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찰을 진행하였다. 그 사찰대상에는 《국회》의원들과 대기업가들도 있고 언론인, 학계의 인물들도 있으며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반대하는 초보시위투쟁에 참가하였던 단체들의 핵심인물들도 있다. 말그대로 남녘의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비열한 감시, 정보수집활동을 벌여왔던것이다.

파쇼세력은 이들의 동향감시를 위해 미행, 도청을 일삼고 지어 개인들의 사생활에까지 감시의 손길을 뻗쳤다.

실로 이것은 민주주의와 초보적인 인권마저 무참히 짓밟는 사상류례조

는 특대형범죄사건이 아닐수 없다.

인간의 사생활과 신상은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다. 그것을 마구 침해하는것은 독재 권력만이 할수 있는 횡포이다.

지금도 남조선인민들은 반세기전 쿠데타로 집권한 《유신》독재 《정권》이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를 내세워 정치인들과 개별적인인물들을 불법사찰한 만행을 기억하고있다.

그러나 현 리명박독재 《정권》처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정보원,

부라부라 덮어버려 하였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기마련이라고 사회 각계층을 대상으로 감행한 그 어마어마한 불법사찰을 다 덮어버릴수는 없는것이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공작리지원관실의 주무관 장진수의 입을 통하여, 《KBS》방송로조의 자료공개로 독재 《정권》의 만행이 백일하에 폭로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그동안 《국민을 섬긴다.》고 곧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리명박 《정권》과 박근혜의 《새누리당》은 저들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할 대신 갖은 억지로 책임을 전 《정권》에 떠넘기며 저들에게로 쏠리는 민심의 중요은 눈초리를 다른데로 돌리려고 별의별 책동을 다하고있다.

이것이야말로 뻔뻔스러운의 극치이고 민심에 대한 최대의 우롱이 아닐수 없다.

속담에 개꼬리 3년 지나도 황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민의를 짓밟는 독재권력의 횡포한 기질은 해가 바뀌어도 변할수 없으며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변했다고 하여 달라질수도 없는 것이다.

리명박과 박근혜는 이번 민간인불법사찰의 최대 공범자이고 독재권력의 계주봉을 앞으로도 이어가려는 쌍둥이 파쇼광망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민심을 파렴치하게 기만하며 독재권력의 최상을 감추고 장기집권을 실현하려는 파쇼매국노들을 오는 《선거》에서 단호히 심판하고야말것이다.

김응철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리명박 《정권》과 박근혜의 《새누리당》은 저들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할 대신 갖은 억지로 책임을 전 《정권》에 떠넘기며 저들에게로 쏠리는 민심의 중요은 눈초리를 다른데로 돌리려고 별의별 책동을 다하고있다.

이것이야말로 뻔뻔스러운의 극치이고 민심에 대한 최대의 우롱이 아닐수 없다.

속담에 개꼬리 3년 지나도 황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민의를 짓밟는 독재권력의 횡포한 기질은 해가 바뀌어도 변할수 없으며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변했다고 하여 달라질수도 없는 것이다.

리명박과 박근혜는 이번 민간인불법사찰의 최대 공범자이고 독재권력의 계주봉을 앞으로도 이어가려는 쌍둥이 파쇼광망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민심을 파렴치하게 기만하며 독재권력의 최상을 감추고 장기집권을 실현하려는 파쇼매국노들을 오는 《선거》에서 단호히 심판하고야말것이다.

김응철

## 쌍둥이 파쇼광

기무사, 검찰, 경찰 등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불법사찰을 감행한 실례를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

그런즉 이번의 불법사찰만행은 군사독재 《정권》들의 불법사찰만행들을 쫓아오는 특대형범죄행위인것이다.

사람들의 분격을 자아내는 민간인불법사찰만행은 이미 2년전인 2010년에 그 꼬리가 드러난바 있다. 그러나 현 집권세력은 검찰과 짜고 들어 송사리 몇명을 기소하는것으로

잘 떠들던 리명박은 은 남조선명성을 창설했다는 감옥으로 만들고 항시적인 감시로 남녘인민모두를 짓밟아온 극악한 파쇼광이고 최고의 감옥간수이다.

이런 독재광망에서 남조선인민들이 어찌 발전장을 잘수 있고 자유와 인권을 누릴수 있었는가. 지난 4년간 남조선의 주요 방송사들이 독재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하여 인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며 불공평권과 보도를 일삼아온것도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잘 떠들던 리명박은 은 남조선명성을 창설했다는 감옥으로 만들고 항시적인 감시로 남녘인민모두를 짓밟아온 극악한 파쇼광이고 최고의 감옥간수이다.

이런 독재광망에서 남조선인민들이 어찌 발전장을 잘수 있고 자유와 인권을 누릴수 있었는가. 지난 4년간 남조선의 주요 방송사들이 독재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하여 인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며 불공평권과 보도를 일삼아온것도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잘 떠들던 리명박은 은 남조선명성을 창설했다는 감옥으로 만들고 항시적인 감시로 남녘인민모두를 짓밟아온 극악한 파쇼광이고 최고의 감옥간수이다.

이런 독재광망에서 남조선인민들이 어찌 발전장을 잘수 있고 자유와 인권을 누릴수 있었는가. 지난 4년간 남조선의 주요 방송사들이 독재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하여 인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며 불공평권과 보도를 일삼아온것도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 북남대화를 송두리채 도륙낸 리명박패당의 반통일적죄악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백서

최근 괴뢰역적패당은 《대북정책》의 실패와 그로 인한 북남관계파탄과 정세악화로 곤경에 몰리게 되고 총선까지 영항을 미치게 되자 그 무슨 《통일백서》요, 《평가서》요, 《토론회》요 뭐요 하는것을 통해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줘주고 저들의 대결정책을 정당화하며 민심과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비렬한 놀음에 매달리고있다.

한편으로는 북남대화에 관심이 있는척 하면서 역겨운 추파도 던지고있다.

그 쉼편피성과 파렴치성은 세상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리명박역적패당이 집권후 북남대화를 모조리 뒤집어엎고 동족

### 극악한 《체제대결론》과 북남대화전면부정

리명박역도는 《대통령》자리에 들어갔기 전부터 《북의 실질적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인 대북정책》을 떠들어왔으며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인 2007년 12월에는 《과거정권들처럼 북에 대해 비판을 삼가하고 북의 비유를 일반적으로 맞추지 않겠다.》고 하면서 북남대화를 체제대결수단으로 악용할 속심을 거리낌없이 드러내놓았다.

리명박역도는 그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우리의 무장해제와 《체제변화》를 노린 《비핵, 개방, 3 000》을 《대북정책》으로 내들었으며 2008년 11월에는 미국에까지 찾아가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통일하는것이 궁극적목표》라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역도는 집권전기간 그 무슨 《균형사태》에 대비한다는 미명하에 《비상통치계획-부흥》, 《통일대계탐색연구》 보고서와 같은 대결각본들을 련이어 조작하고 2010년에는 체제대결정책을 여론화할 목적에 《통일세》라는것을 들고나왔다가 각계의 규탄과 배격을 받았다.

2010년 《8.15정국사》라는데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에 기초한 《3단계 통일방안》이라는것을 들고나온 역도는 2011년 6월 청와대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족속들을 모여놓고 《통일이 도적처럼 한밤중에 올수 있다.》는 잡요괴같은 소리를 쉼쳐대며 《체제통일》을 기정사실화해나섰다.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것은 북남사이에서 이미 수십년전에 합의한 북남관계발전과 통일문제해결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다.

대결정책에 매달리다 못해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중상모독하여 북남관계를 더는 수습할수 없는 파국에 몰아넣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리명박패당과 같은 몰상식하고 무지막직한 친화악당, 만고역적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간다는것은 더는 상상조차 할수 없게 되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불순한 체제대결망상에 사로잡혀 북남대화를 체계적으로 파탄시켜왔으며 특대형도발행위로 그것을 송두리채 도륙낸 리명박역적패당의 천주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 반통일적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이 백서를 발표한다.

이 모든것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역적패당의 본심은 북의 《변화》가 없는 한에서는 북남대화 자체가 필요없다는것이다.

역적패당은 이러한 관점에 철저히 서서 《기다리는 전략》이요, 《원칙고수》요, 《진정성》이요 뭐요 하는따위의 온갖 망발들을 쉼쳐대며 오늘날까지 북남대화를 한사코 외면하여왔다.

《기다리는 전략》이란 본질에 있어서 우리 제도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극히 불순한 기도이며 《원칙고수》란 그 내용과 본질, 목적에 있어서 반공화국체제대결정책을 고수하겠다는것이다.

《진정성》이라는것도 따져보면 우리가 《핵폐기》와 《체제변화》로 《진정》을 보이라는것이다.

동족대결에 환장한 리명박역도는 《북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정권으로 아무리 대화해야 소용없다.》고 쉼쳐대며 2008년 3월 괴뢰통일부에 《북에 어떤 대화제안이나 접촉도 하지 말라.》고 강박해나섰다.

그리고 남조선에서 북남대화를 전담하는 괴뢰통일부를 반대화부, 반통일부 총 전략시켰다.

리명박역도는 괴뢰통일부의 임무와 직능을 애당초 《체제통일》로 정하고 통일부에 있던 대화와 협력부서들을 축소, 폐기하였으며 반통일교육기구의 요직에 전폐없이 악독한 반대화본자, 동족대결론자들을 들어앉혔다.

리명박역도가 집권한 후 첫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하중은 련사적인 북남공동선언대고있다.

괴뢰국방부 장관 김관진을 비롯한 군부호전광들은 지난 시기 정전협정 교전규칙과 《유엔군사령부》와의 관계때문에 북의 공격을 받고도 자체할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자위권》견지에서 단적으로 《응징》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서울이 공격받으면 평양을 타격할것이라는것을 내놓고 공언하고 있다.

《대북상호주의기본원칙》을 어긴것이라고 결코들면서 역도의 대결정책을 앞장에서 집행해왔다.

그 뒤를 이은 극악한 반통일대결광신자 현인택은 《우보천리》요 뭐요 하며 북남대화를 악랄하게 반대하다 못해 나중에는 《북파는 대명천지에 같이 살수 없다.》는 악담을 쉼치며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판냈다.

현 괴뢰통일부 장관 류우익 역시 《유엔성》의 간판밑에 《원칙견지》니, 《진정성》이니, 《천안》호, 연평도사건에 대한 리명박역도는 2008년 2월 남조선 언론들과의 회견에서 《북핵폐기가 남북관계의 대전제》라고 공언함으로써 집권기간에 《핵포기》가 실현되지 않으면 북남대화도 한반도자국도 움직이지 않으려는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2008년 11월에는 《임기중 목표가 북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오게 하는것이고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자기의 《대북전략》이라고 하면서 《북이 자제를 바꾸기를 기다리고있다. 기다리는것도 전략》이라고 쉼쳤다.

리명박역도는 2008년 4월과 2009년 9월, 2011년 1월 미일상전들을 만나는 기회때마다 《북핵포기없이는 어떠한것도 불가능하다는것이 우리 정부의 립장이다.》, 《북의 우라니움분류문제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로 가져가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북남대화를 단마디도 일축해버렸다.

이전 괴뢰통일부 장관 현인택을 비롯한 줄개들도 《북이 핵을 가지고 남북관계개선을 바라라는것은 나무우에 올라가 물고기를 얻으려는것》이 아니라니 뭐니 하면서 북남대화분해가 제기될때마다 《핵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양탈을 부리었다.

리명박역적패당이 주체제기도 우리의 《핵포기》를 북남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것은 상전의 핵포기주장에 적극 협력, 추종하여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는 동시에 어떻게 하나 북남대화를 거부하고 회피해보려는 음흉한 계략

은 모든것의 끝장을 의미하게 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이 상전과 결탁하여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그 무슨 《요격》이니, 《타격》이니 하고 군사적도발소동을 일으키고있는것은 우리의 위성발사등을 어떻게 하나 저지시키고 우리의 강력한 보복타격에 대한 불안이 떨고있는 제 족속들을 위안해보려는 가스로운 몸부림이다.

여기에는 정세를 긴장시켜 대결과 전쟁책동을 합리화하고 반공화국모략소동에 더욱 매달리려 남조선정세의 불만을 무마하고 여론을 탄대로 돌려 통치위기를 수습하고 불리한 《총선》국면을 역전시켜보려는 음흉한 속심도 깔려있다.

현실은 리명박패당과 같은 대결미치광이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어느 하루도 마음놓고 살수 없으며 전쟁위험에서 벗어나질수 없다는것을 더욱 명백히 보여준다.

역적패당의 대화부정적립장은 우리에게 대해 그 무슨 《개혁》, 《개방》이니 뭐니 하면서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내건데서도 드러났다.

리명박역도는 2008년 2월 《대통령》취임사라는데서 북남대화가 열리자면 북이 《개방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망발하였다.

이어 2008년 3월에는 북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는 대화만이 필요하다고 떠벌였다. 그런가하면 역적패당은 《개혁개방정책의 기초는 그자체가 북에 대한 압박의 수단》이라느니, 《이제까지 해오던 협상자세를 바꾸어야 한다.》느니, 《북파의 협력은 북의 정책, 제도개선의지를 확인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느니 하고 고아냈다.

괴뢰패당은 올해 2월 괴뢰통일부의 집권 4년간 《대북정책》을 총화하는 자제 《평가서》라는데서 저들에 의해 북남대화 실현면차단, 전면파탄된것을 두고 그 무슨 《성과》로까지 내세우면서 《북을 비핵화와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공강대결형성했다.》느니 뭐니 하고 자화자찬하였다.

역적패당의 대화부정적립장은 모략사건들을 조작하고 그 책임을 대방에게 넘겨줘워 북남대화를 회피한데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리명박역도는 2008년 7월 우리 군사특계구역에 불법침입

### 회담장안팎에서의

리명박역도는 2007년 12월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그 무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것을 내세워 북과 이미 합의한 실무회담들과 협력사업들이라고 해도 사전에 저들과 《실용성》, 《타당성》을 협의한 다음 추진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역적패당의 악랄한 방해책동에 의해 2008년 1월말부터 2월사이 개성에서 진행된 북남철도 협력분과위원회 제1차회의, 금강산관광활성화를 위한 북남실무접촉, 북남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회의 등 10.4선연리행을 위한 대화와 접촉들이 아무 결실도 보지 못하였다.

2008년 2월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은 리명박역도는 북남대화 전면거부를 공식선언하고 기존 대화들을 완전중단시켰으며 북남합의리행을 악랄하게 가로막아나섰다.

역적패당의 책동으로 2008년 상반년안에 진행하기로 되어있

하였다가 사살된 금강산관광객사건이 일어나자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약속, 신변안전보장조치》를 운운하면서 근 10년간이나 진행되어오던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관광재개와 관련한 우리의 대화제들을 무작정 거부해나섰다.

역적패당은 2009년 8월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우리가 금강산관광재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신변안전문제, 재발방지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을 최고 수준에서 다 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간간인사업자와의 약속은 인정할수 없다.》고 하면서 나자빠졌다.

2010년 3월과 11월에 모략적인 함선침몰사건과 연평도사건을 련이어 조작해낸 역적패당은 열도당도잡게 그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북남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천안함, 연평도사파가 남북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떠벌였다.

나중에는 우리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제안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결고있었으며 《더이상의 대화와 협력은 무의미하다.》고 공언하였다.

리명박역도는 《지금의 남북관계가 가장 정상적인 궤도로 가고 있다고 본다.》, 《임기중에 정상회담을 한번도 안해도 좋다.》고 떠벌어졌으니 이처럼 악독한 반대화본자, 동족대결광신자가 또 어대 있었는가.

### 북남대화파괴책동

던 제2차 북남총리회담과 북남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2차회의를 비롯하여 공동선언리행을 위해 추진되어오던 20여건의 북남 실무회담들과 협력사업들이 모조리 파탄되었다.

10.4선언에 반영된 개성-신의주철도와 개성-평양고속도로 개보수문제, 안변, 남포에 조선허력리자기를 건설하는 문제들은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현장조사까지 진행되었으나 그 무슨 《타당성》을 운운하는 역적패당의 방해책동에 의해 중도반단되었다.

지어 《3통》(통행, 통신, 통관)문제,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완공과 2단계 개발착수문제, 립진강하구 공동리용문제 등도 역적패당의 대화거부책동으로 북과 남이 실무협상에 마주앉아보지도 못한채 모두 결판나고 말았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와 관련한 실무협상도 역적패당이

《북방한계선》을 날려보내려는 《북의 전략》이라느니, 그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느니 뭐니 하면서 극구 반대해나선것으로 하여 리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래 한번도 마주앉아보지 못하고 파탄되었다.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2009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진행된 개성공업지구실무접촉은 괴뢰들이 개성공업지구사업을 유지, 활성화하는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신변안전보장》이니 뭐니 하는 똥판지같은 문제들을 들고나와 기본문제제의를 회피하는 바람에 무려 6차례나 공전을 거듭하다가 끝내 파탄되었다.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회담과 관련하여서도 역적패당은 2009년 11월 《권능》이요 뭐요 하며 쉼트짐을 걸어 접촉을 회피하였다. 《사과》를 북남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천안함, 연평도사파가 남북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떠벌였다.

이것은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지지를 불러일으켰으며 온 겨레와 세계에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괴뢰패당은 우리의 조건없는 포괄적인 협상제안에 대해 무턱대고 《위장평화공세》, 《통일전선전술》이라고 악랄하게 헐뜯었으며 마치 못해 끌려나온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회를 위한 예비회담장에서는 《천안》호사건과 연평도사건을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면서 그 무슨 《진정성》이니, 《책임적인 조치》느니 하는 극도에 이른 통치위기에서 벗어남에 총선거에서 참패를 모면하기 위한 서툰 잔꾀에 불과하다.

체제대결의 망상에 사로잡혀 백두산화산공동연구와 관련한 북남실무접촉에 아무런 실권도 없는 민간전문가들을 대표로 내보내어 결실을 볼수 없게 하였으며 북남당국회담의 급과 시일, 장소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국장급실무접촉제와 중단된 북남직접사회담 및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회담, 개성공업지구 실무회담을 개최할때 대한 제의 그리고 우리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 《국회》사이의 의원접촉 제안 등에는 아예 응대조차 하지 않았다.

한편 역적패당은 지난해 2월 조선시해상에서 표류당한 우리 주민 31명을 강제잡치하여 근 2개월동안이나 억류해놓고 귀순을 강요하는 비인도적행위를 감행하면서 주민송환문제협의를 위한 우리의 적십자실무접촉제의를 한사코 거부하였다.

특히 리명박역적패당은 지난해 12월 천만똥밖에도 민족의 어버이를 잃고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는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대고 칼질하는 전대미문의 천인공노할 반인륜적범죄를 저질렀다.

역적패당은 남조선의 야당들과 각계층 단체들의 조문길에 야수적으로 가로막았으며 《북지도부와 주민분리대응》을 쉼치면서 영결식이 거행되는 날에는 우익 보수단체들을 군사분계선지역에 몰아 우리들의 최고존엄을 헐뜯고 소요를 선동하는 반공화국배타를을 살포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지어 지난 2월에는 국상중에 있는 동족을 겨누어 미제와 야합한 북침전쟁영입을 광란적으로 벌리는 속에서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는 특대형도발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여 북남대화는 물론 북남관계를 영영 수습할수 없는 완전 파국으로 몰아넣었다.

괴뢰역적패당과 같이 도덕도 모르고 온갖 간악한 도발행위로 동족의 가슴을 란도질하고 북남관계를 최악으로 끌고간 북남 반대화본자, 대결미치광이는 없다.

지금 역적패당이 협약해진 정세와 내외여론의 비활치는 규탄을 모면해보려고 북남관계파탄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북이 대화에 나오는것이 우선》이라느니 뭐니 하며 놀아내고있지만 그 무슨 극도에 이른 통치위기에서 벗어남에 총선거에서 참패를 모면하기 위한 서툰 잔꾀에 불과하다.

체제대결의 망상에 사로잡혀 온갖 망된것을 하다 못해 우리의 생명인 최고존엄까지 엄중하게 모독한 역적패당과 상대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북남대화를 송두리채 파괴하고 겨레의 통일념원을 짓밟은 리명박역적패당은 민족의 지주와 규탄속에서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주제101(2012)년 4월 2일 평 양

#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기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최근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발사를 결코 《요격》이니 뭐니 하며 새로운 군사적도발을 일으키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역적패당은 미국과 결탁하여 각종 감시기구들과 미싸일, 이지스구축함을 비롯한 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우리 인공위성발사체의 자리궤를 추적하고 잔해들이 떨어지는 경우 요격하겠다고 날치고있다.

미국은 인공지구위성추적 및 감시와 요격지원을 위한 최첨단 해상레이다기서 《SBX-1》을 하와이로부터 긴급이동시키고있으며 일본 역시 위성추진체가 일본열도에 떨어지는 경우 요격하겠다고 으르렁거리고있다.

한편 괴뢰군부호전광들은 그 누구의 《기습공격》과 《도발가능성》을 운운하며 《상용표적타격계획》이라는것을 세워놓고 《평양타격》 폭언을 서슴없이 쉼쳐

인 위성을 요격하겠다고 허망하게 날뛰는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대결미치광이는 어느때 어디에도 없었다.

미친개 눈에는 동등이만 보인다고 반공화국대결과 적대의식에 환장이 된자들에게는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도 핵탄두로 보이는 모양이다.

적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소동을 일기나 하고 고아대는가 하는것이다.

괴뢰호전광들이 《평양타격》이요 뭐요 하는것은 더욱 무분별한 히스메리적광판이다.

우리의 심성한 평양의 하늘은 그 누가 그 어떤 수단으로써도 감히 어지럽힐수 없을뿐아니라 평양을 타격하고 살아남을 위하여 어느 각한다던 것처럼 큰 오산은 없다.

그것은 괴뢰패당의 가장 비참한 종말과 남조선에 있

## 잠간! 다시 생각해 보시라

박 철

가다리던 《총선》 가슴속 꿈을 안고 다가서는 투표함 잠간!

남녘의 겨레여 걸음 멈추고 다시 생각해보시라

누구에게 어느 정당에 표를 찍어 운명의 함 거기에 넣으려 하는가?!

한손에도 가벼운 두장의 표- 하지만 실려있다

두손으로도 들수 없는 삶의 세상이 넣어 웃음의 세상 만들수도 있고 넣어 눈물의 세상 울수도 있거니

누구를 어느 정당을 찍어 넣어야 하겠는가?!

《쇄신》과 《개혁》, 《차별화》 웃음발린 《선거공약》에 그 당 그 후보를 찍는다면

암흑의 력사는 반복되리라

언론엔 무참하게 자갈뒤흘리고 민간인은 불법사찰당하고 강부자들은 또 여대의 돈 불쿠고

명줄을 건 삶의 리전들엔 군사기지가 들어앉아 화약내풍거리 잠간!

반통일의 광풍 사남게 몰아치리라 6.15는 또다시 고통을 당하고 헤어진 혈육을 그려 백발을 엮은 마지막 로인들까지 숨을 거두고 서해엔 불기둥이 치솟아오르리라

잠간! 걸음을 멈추고 깊이 생각해보시라

바라내는것이 인민의 참된 삶이고 소원하는것이 조국의 통일일진대 과연 누구를 어느 당을 찍어야 하겠는가

불의엔 타협 모르고 정의엔 것처럼 열렬한 남녘겨레여 민생과 민중의 앞날이 그 가벼운 표 두장에 엮혀져있거니 자신과 아이들의 운명을 담아 한장한장 무겁게 넣으시라

오늘의 그대들의 결심과 용단에 래일의 민주의 세상이 있다

래일의 6.15의 세상이 있다

오오, 민주와 통일의 새 세상이 《4.11총선》 너머 온 남녘을 부른다!

# 리명박역적패당은 북남민간협력사업을 파괴, 말살한 장본인이다

## 민족경제협력연합회고발장

오늘 북남민간협력사업은 리명박패당의 류태없는 반공화국대결책동에 의해 질식상태에 처해있다.

피뢰패당은 6.15이후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활성화되던 북과 남의 민간협력사업에 빗장을 지르고 그것을 무참히 짓밟아버렸다.

북남사이 민간협력사업이 시작된 이래 오늘처럼 완전히 막힌 적은 일찌기 없었다.

민중경제협력연합회는 온 겨레와 함께 역적패당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동족대결에 미쳐 북남민간협력사업을 악랄하게 파괴, 말살한 리명박패당의 전대미문의 반민족적죄행을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하여 이고 발장을 발표한다.

### 1

북남협력사업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고 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6.15시대에 북과 남의 민간단체들은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일념으로부터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협력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바쳐왔다.

이 과정에 우리 겨레는 동족끼리 힘과 지혜를 합쳐나가는 바로 여기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이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그 이전시대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놀라운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리명박보수패당이 집권한 이후 북남사이의 민간협력사업은 하루아침에 된서리를 맞고 말았다.

리명박패당은 무엇보다 남조선 민간단체들을 그들의 반민족적인 《대북정책》수행에 철저히 복종시키기 위한 길들이기에 미친듯이 매달리었다.

전날부터 남조선민간단체들이 북과 진행하는 협력사업을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던 피뢰패당은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기 바쁘게 그 무슨 실례파악이니, 료해니 하는 구실밑에 민간단체들에 대한 전면적인 감시농성부터 벌려놓았다.

그리고는 지난 시기의 협력사업들에 대해 무작정 문제시하고 생트집을 걸며 벌금을 물리거나 사업을 중지시키고 그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친북》 딱지를 붙여 정치적박해와 탄압을 가하는 방법으로 민간단체들의 명줄을 조이었다.

피뢰통일부는 그들의 탄압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2008년 12월에 남북협력기금운영사상 처음으로 기금집행과 관련한 백서라는

것을 발표하고 지난 《정부》들의 정책을 시비중상하면서 앞으로 매해 민간단체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것이라고 선포하였다.

그런가하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민간단체들의 협력사업에 대해 그 무슨 타당성, 효율성, 유효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점수로 매겨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표라는것을 만들어 내돌리면서 제한조치를 취하였다.

피뢰패당은 그 무슨 《신고제》요, 《등록제》요 하면서 민간단체들의 손발을 철저히 얽어매놓았으며 협력사업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도 편이 고안해냈다.

2009년 1월 피뢰패당이 《남북교류협력법》에 행정조사제도라는것을 새로 집어넣어 통일부장관이 북과 협력사업을 하는 인사나 단체에 대해 아무때나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수 있으며 《법》에 저촉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처분할수 있도록 한것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한편 피뢰패당은 남조선민간단체들이 그들의 《대북정책》을 따르도록 로골적으로 압박하였다.

남조선의 50여개 민간협력단체들의 모임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2009년 1월에 발표한 공동행동규범은 피뢰당국에 다진 서약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그러하여 가족이나 당국의 악질적인 감시농성에 한풀 꺾인 민간단체들은 생존을 위한 고민끝에 《대북지원의 원칙과 실시기준, 지원물자의 분배감시강화, 정보공유》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행동규범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피뢰패당은 북을 방문하는 남조선민간단체들로부터 《북의 일방적정치선전, 주장에 동조하는 언행을 하지 않을것》을 다짐하는 그 무슨 약속사라는것을 받아내는 농성을 벌렸는가 하면 그것으로도 성취치 않아 기술자, 후원자 등의 모자를 씌운 앞잡이들을 박아넣어 방문자들의 일거일동을 철저히 감시통제하게 하였다.

피뢰통일부는 민간단체들의 우리측 지역방문에 대해 누구는 안된다느니, 몇명을 초과하지 말라느니 하는 식으로 일련을 엄격히 제한하였으며 그 무슨 《상황》이요, 《경로》요 하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제때에 승인해주지 않아 단체들이 방문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다.

또한 까다로운 기준과 복잡한 절차를 끊임없이 조작해내고 잦아한 조건부들을 내걸어 민간단체들에서 물자반출입을 제대로 할수 없게 하는 등 협력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나갈수 없게 각방으로 책망을 늘렸다.

한편으로는 도적고양이마냥 민간단체들이 우리와 주고받는 경계망을 피고 장부책과 물자들을 살살이 뒤지는 농성을 벌리었다.

지어 그 무슨 《자금차단》이요, 《접촉위험》이요 하면서 남조선사람들이 제3국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식당들에 가서 식사도 마음대로 할수 없게 오금을 박는 나절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피뢰패당의 협력사업방해책동의 미수는 개성공업지구사업에도 엄중히 뻔했다.

피뢰보수패기들은 《개성공단은 중단해도 무방하다.》느니, 《인질사태를 초래할수 있다.》느니 하고 고야대며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있는 남측기업들의 인원과 원자재반출입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고 임의의 시각에 철수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데 대한 비밀지령까지 하달하였다.

리명박패당의 악랄한 차단책동으로 하여 6.15시대와 더불어 끊임없이 이어져오던 북남사이의 여러 갈래의 민간협력사업들은 모두 차단봉이 내리워지고 동족대결은 더 한층 격화되게 되었다.

실로 리명박패당처럼 북남사이의 민간협력사업을 완전히 질식, 파괴, 말살하기 위하여 그처럼 악랄하고 비렬하게 날뛰 역적의 무리는 일찌기 없었다.

### 2

리명박역적패당이 북남민간협력사업을 거세말살하기 위하여 퍼논이 되며 미쳐날뛰는것은 협력사업을 체제대결의 공간으로 약화해버리는것과 중요하게 판된되어있다.

피뢰패당은 미국의 반공화국대결과 제재책동에 저들도 적극함세하여 북남민간협력사업까지 완전히 가로막게 되면 우리들이 굶어들지 않을수 없으며 결국 저들의 《기타리는 전락》도 실현될것이라고 어리석게 타산 획책하였다.

이로부터 금강산관광재와 관련한 우리의 인내성있는 노력을 끝끝내 뿌리치고 남조선인민들의 관광길을 끊어놓았으며 개성공업지구사업이 기를 펴지 못하게 계속 장에를 조성하면서 그 무슨 돈을 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원, 단 한g의 물자와 한푼의 자금도 저들의 봉쇄망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피뢰패당은 제3국을 우회한 물자반출입을 막는다고 하면서 《합동정부접점단》이라는것을 내왔으며 부산, 평택 등지의 모든 세관과 항구들을 살벌한 경계망을 펴고 장부책과 물자들을 살살이 뒤지는 농성을 벌리었다.

지어 그 무슨 《자금차단》이요, 《접촉위험》이요 하면서 남조선사람들이 제3국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식당들에 가서 식사도 마음대로 할수 없게 오금을 박는 나절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피뢰패당의 협력사업방해책동의 미수는 개성공업지구사업에도 엄중히 뻔했다.

피뢰보수패기들은 《개성공단은 중단해도 무방하다.》느니, 《인질사태를 초래할수 있다.》느니 하고 고야대며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있는 남측기업들의 인원과 원자재반출입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고 임의의 시각에 철수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데 대한 비밀지령까지 하달하였다.

리명박패당의 악랄한 차단책동으로 하여 6.15시대와 더불어 끊임없이 이어져오던 북남사이의 여러 갈래의 민간협력사업들은 모두 차단봉이 내리워지고 동족대결은 더 한층 격화되게 되었다.

실로 리명박패당처럼 북남사이의 민간협력사업을 완전히 질식, 파괴, 말살하기 위하여 그처럼 악랄하고 비렬하게 날뛰 역적의 무리는 일찌기 없었다.

피뢰패당이 통일부를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남조선 각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그 기능을 대폭 축소, 약화시키고 민간협력단체들에 대한 정치적박해와 압박을 끈질기게 가해온것 역시 북남협력사업을 재정리, 재편성하여 저들의 반공화국대결정책에 부응시키기 위한 술책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피뢰패당은 2010년 10월 남북협력기금을 그 누구의 《금번사태》를 노린 통일세연구와 선전을 위한 비용으로 쓰기로 결정하였다가 남조선 각계의 저항에 부딪혔다.

여기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대신 피뢰패당은 올해 2월초 《국회》에서 《통일항아리》니 뭐니 하며 그 무슨 《통일계정》을 위한 비용으로 쓰기로 결정하였다가 남조선 각계의 저항에 부딪혔다.

여기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대신 피뢰패당은 올해 2월초 《국회》에서 《통일항아리》니 뭐니 하며 그 무슨 《통일계정》을 위한 비용으로 쓰기로 결정하였다가 남조선 각계의 저항에 부딪혔다.

여기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대신 피뢰패당은 올해 2월초 《국회》에서 《통일항아리》니 뭐니 하며 그 무슨 《통일계정》을 위한 비용으로 쓰기로 결정하였다가 남조선 각계의 저항에 부딪혔다.

여기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대신 피뢰패당은 올해 2월초 《국회》에서 《통일항아리》니 뭐니 하며 그 무슨 《통일계정》을 위한 비용으로 쓰기로 결정하였다가 남조선 각계의 저항에 부딪혔다.

여기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대신 피뢰패당은 올해 2월초 《국회》에서 《통일항아리》니 뭐니 하며 그 무슨 《통일계정》을 위한 비용으로 쓰기로 결정하였다가 남조선 각계의 저항에 부딪혔다.

여기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대신 피뢰패당은 올해 2월초 《국회》에서 《통일항아리》니 뭐니 하며 그 무슨 《통일계정》을 위한 비용으로 쓰기로 결정하였다가 남조선 각계의 저항에 부딪혔다.

여기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대신 피뢰패당은 올해 2월초 《국회》에서 《통일항아리》니 뭐니 하며 그 무슨 《통일계정》을 위한 비용으로 쓰기로 결정하였다가 남조선 각계의 저항에 부딪혔다.

여기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대신 피뢰패당은 올해 2월초 《국회》에서 《통일항아리》니 뭐니 하며 그 무슨 《통일계정》을 위한 비용으로 쓰기로 결정하였다가 남조선 각계의 저항에 부딪혔다.

대주며 우리 국경지역들에서 너절한 물자살포농성을 벌리는 광대극도 거리낌없이 연출하였다.

리명박패당은 저들의 북남민간협력사업차단책동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첩면피한 기만농성에 매달렸다.

원래 동족대결관념이 체질화된 리명박역적도는 집권하기 전부터 북과의 협력사업이 《북의 정권에만 힘을 실어주고 통일을 더 멀게 한다.》느니, 《남쪽의 내부갈등이 증폭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다.》느니 뭐니 하는대위의 꾀변을 늘어놓으며 대결홍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이러한 리명박역적도이기에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자마자 보수인론들을 동원하여 《퍼주기》론과 《대북지원무용》론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키고 북과의 협력사업이 사회의 리념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된다느니 뭐니 하면서 저들의 반공화국대결과 협력차단책동을 원구 합리화해나갔다.

피뢰패당은 북남민간협력사업을 완전히 질식시켜놓고도 뻔뻔스런 꾀변을 늘어놓고있다.

지난해 2월 피뢰통일부는 《남북관계가 모두 끊어진것은 아니》라느니, 《인적교류와 물적교류를 보면 그렇지 않다.》느니 뭐니 하면서 자화자찬하는 웃지 못할 회극을 벌려놓았다.

피뢰패당은 올해에 들어와 남북협력기금을 특별채출한다, 물자반출출진을 완화한다,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확대를 통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꿰치며 련일 오그랑수를 쓰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분노한 남조선의 민심을 조금이라도 눅갓히고 내외여론을 오도하며 최악의 통치위기를 수습하며 다가오는 선거를 무난히 치르어보려는것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리명박패당이야말로 북남민간협력사업을 동족대결의 정치적 도구로 만들고 저들의 집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서슴없이 악용하는 천하에 둘도 없는 반역의 무리이다.

### 3

북남민간협력사업에 대한 리명박역적패당의 반민족적책동으로 하여 초래된 후과는 실로 엄중하다.

남조선인론들이 보도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5.24조치》이후 1년반동안에 북남민간협력사업에 참가하였던 남조선민간기업들이 입은 경제적피해액은 개

성공업지구사업축소, 북남교역과 임가공중단 등으로 인한 직접손실이 27억 5 000만US\$, 간접손실은 74억 8 000여만US\$에 달하였다.

또한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차단책동으로 3년동안에 현 대축이 입은 피해액만도 남조선 돈으로 무려 4 800여억원에 달한다.

피뢰패당의 북남민간협력사업차단책동으로 6.15와 함께 활기를 띠던 남조선의 수많은 민간협력업체들과 단체들이 존재를 마쳤거나 파산의 운명에 처해있다.

북남협력사업중단으로 물가상승, 외자유출, 기업대량파산 등의 사태를 불러와 근 3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남조선돈으로 5조 9 720여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북남민간협력사업에 명줄을 걸고있던 남조선주민들의 생활치지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있으며 더는 살아갈 희망조차 잃고 자살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다.

하기에 오늘 남조선 각계와 지어 집권층내부에서까지 당국의 북남협력차단책동은 《남북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애국은 국민들만 희생시키는 자해조치》, 《정부는 살인자》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련일 세차게 터져나오고있다.

지금 민심의 버림을 받고 파멸의 운명에 처한 리명박역적패당은 그 무슨 《민간교류확대》니, 《승인》이니 하며 마치 북남협력사업에 관심이 있는듯이 떠벌리고있다.

그러나 그따위 권모술수로 북남민간협력사업을 하늘로 날려보낸 저들의 용납 못할 죄악을 절대로 간추출수 없다.

더우기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를 잃고 비분에 잠겨있는 북의 동포형제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조의방문길에 오른 남조선인민들을 총칼로 가로막고 조의식장을 무참히 짓밟아놓다 못해 감히 하는 무서운줄도 모르고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중상모독한 페륜페덕의 무리들이 협력교류에 대해 말할 아무런 자격도 체면도 없다.

북남협력과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선차적으로 해야 할것은 리명박과 같은 반역의 무리부터 단호히 쓸어버리는것이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북남민간협력사업을 파괴, 말살한 장본인인 리명박역적패당을 거어어 심판하고 민족의 화해와 번영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주제101(2012)년 4월 5일 평양

# 금강산국제관광을 방해하려는 그 어떤 불순한 시도도 파란을 면치 못할것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담화

지금 내외의 커다란 관심 속에서 금강산국제관광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있다.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과 관광업체들이 금강산국제관광에 적극 참여하려는 의향을 표시하면서 관광신청과 관광계약, 관광시설운영, 투자 등을 제기해오고있다.

우리의 해당 단위들에서는 관광객들의 출입국과 운수수단, 편의보장을 비롯한 모든 준비를 성과적으로 갖추어나가고있다.

금강산국제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따라 그에 당황망조한 리명박패당은 지금 국제관광을 방해해 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드러난데 의하면 최근 리명박패당은 제3국의 피뢰대표부들에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되는 《북의 금강산국제관광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무조건 막라.》는 비밀지령을 내렸다.

그에 따라 피뢰대표부들이 해당 나라와 지역의 정부와 관계당국, 관광업체들에 관

객을 금강산에 보내는것은 《위법》이며 《신변안전을 담보할수 없다.》고 하면서 보내지 않도록 해달라는 공식각서를 보내는 농성을 벌리는가 하면 피뢰통일부, 외교통상부, 국정원, 국방부 등의 관계자들과 요원들이 사방으로 싸다면서서 우리의 금강산국제관광을 파란시키기 위한 온갖 나절하고도 비렬한 모략책동과 막후공작에 매달리고있다.

피뢰패당은 저들의 개별적관광업체들을 내세워 다른 나라 선박회사들을 찾아가 돈으로 매수하여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리객선입대계약을 취소하게 하는 한편 저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망하게 하겠다는 등으로 위협공갈을 해대고있다.

지어 금강산국제관광사업에 나서고있는 우리 해외동포들을 협박하고 각방으로 몰래하다 못해 물레 람치할 흥계까지 꾸미고있다. 금강산국제관광을 방해하기 위한 리명박역적패당의 비렬한 모략책동은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을 성대히 맞이하는 우리의 경사스러운 태양절행사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공화국의 위상을 깎아내리며 저들의 차단조치가 허물어지는것을 막고 동족대결책동에 더욱더 매달리려는 불순한 목적으로부터 출발된것으로서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이다.

역적패당이 떠드는 관광객 사전과 신변안전문제로 말하면 그 실상이 이미 드러난것으로서 금강산관광을 방해하기 위한 생역지에 불과하다.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독점권과 재산권문제 역시 피뢰보수당국이 수년동안이나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중지시키고 남조선기업들도 금강산에 못들어오게 가로막는데 대처하여 우리가 새 투구법을 제정하여 명백히 한 문제이다.

새 법규에 따라 남조선기업이 가지고있던 금강산관광사업 독점권은 없어졌으며 재산권은 누구에게나 철

저히 담보되어있다. 남측기업들이 가지고있던 재산은 해당한 절차에 따라 이미 법적처분에 들어갔으므로 더 문제될것도 없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는 투구법에 따라 온갖 특별혜들과 편의들이 담보되어 있다.

하기에 새 투구법이 발표된 후 금강산국제관광에 의욕을 가지고 참가하려는 관광업자들과 관광객들의 대렬이 날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속에서 지난해에 배와 비행기에 의한 금강산국제관광이 여러차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뢰패당이 부당한 꾀변으로 금강산국제관광을 가로막아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하는것이 야말로 대결미치광이로서의 그들의 정체를 더욱 드러낸 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의 금강산관광길을 가로막은것도 용납할수 없는 최악인데 국제판

판까지 손을 뻗쳐 방해해 보려고 온갖 나절하고 불순한 모략책동에 매달리는 리명박패당은 실로 민족의 수척이고 문명의 적이며 모든 악의 근원이다.

피뢰역적무리들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금강산관광방해책동은 파란을 면할수 없으며 리명박패당은 민족의 저주와 세상사람들의 규탄속에 비참한 종말을 고하고야말것이다.

세계적인 명산 금강산은 우리 민족의 자랑일뿐 아니라 인류공동의 문화유산이다.

## 교포신문이 역적패당의 죄행을 단죄

일본에서 발행되는 교포신문 《민족시보》 1일부가 리명박역적패당의 죄행을 단죄하는 글을 실었다.

같은 남조선의 각계 민중이 총성기를 통하여 리명박과 《새누리당》을 심판할 의지에 넘쳐있다고 밝혔다.

부정부패의 만연, 빈부격차의 증대, 제주해군기지건설강행,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 《보안법》에 의한 민주화말살 등 현 《정권》의 행적은 죄악으

로 일관되었다고 같은 지적하였다.

그중에서도 엄중한것은 조선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한것이라고 같은 까밝혔다.

같은 북에 대한 적대적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며 감행된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들과 조선서해상에서의 군사연습들은 의도적으로 평화를 파괴하는 도발행위라고 단죄하였다.

현 《정권》하에서 북남관계는 날로 악화되고 평화는 멀어지고있으며 반공화국대결정책이 계속되고있다고 같은 개탄하였다.

같은 호전적태도로 일관하며 조선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킨 리명박패당은 민족적량심도 없다고 비난하였다.

다가오는 총선거에서 6.15공동선언지지세력이 련대하여 리명박과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할것이라고 같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인민들 굴욕협정폐기를 요구하여 초불집회

주제101(2012)년 4월 1일 평양

